

아이좋아 경남교육

SEPTEMBER 2016 Vol.3



마산용마고 3학년
야구부(포수)
나종덕



책 속에 놀이터를 세웁니다



책 속에 담긴
글자를 단순히 읽기보다
책 속에 담긴
지식을 맛있게 먹는다면
어떨까요?

책 속에 놀이터를 세울 때
아이들의 상상력은 커집니다.
정답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아이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갈 때
배움은 즐거워집니다.

**아이의 눈으로
경남교육을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근**





아이좋아 경남교육

SEPTEMBER 2016 Vol.3

06



발행일 2016년 9월 1일
 발행인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편집인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기획총괄 홍보안전담당사무관 한관호, 주무관 이지연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주소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양대로 241
 대표전화 055)268-1100 교육민원 055)268-1004
 홈페이지 <http://www.gne.go.kr>
 기획·취재·편집·인쇄
 경상남도교육청 홍보안전담당관, (주)브레인

‘아이좋아 경남교육’ 매거진에 게재된 내용은
 허가 없이 무단복제를 금합니다.(비매품)



18

‘아이좋아 경남교육’ 매거진 구독 신청

발행시기	격월간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교육청 홈페이지 ⇒ 경남교육홍보관 ⇒ 매거진 신청/해지 모바일 신청 가능
구독료	무료
문의	홍보안전담당관 278-1784-6

경남교육뉴스 방송 편성표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서경방송 8	17:55	17:55		17:55	21:10	13:00 00:20	13:00 00:20
경남방송 3 25	08:15	14:20	22:00	08:30	15:15	14:20	19:45
서경방송 진주, 사천, 남해, 하동, 함양, 산청 8							
경남방송 그 외 지역 3 25							

※편성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2



37

46



Contents

06 특별기획 교육감과 학교운영위원장 대담
막걸리 한 사발의 수다

아이 + 좋아 = 학교 이야기

- 16 행복학교 탐방
놀이문화 혁신 거제 내곡초등학교
- 21 별별 꿈 이야기
마산용마고 3학년 야구부(포수) 나종덕
- 26 열혈교사 도전기
송인세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
함양교육지원청 김정옥 교육장을 만나다
- 36 쉬어가는 코너
교사 사진동아리 작품전

아이 + 좋아 = 소통 이야기

- 38 반.찬.통
야간자율학습 폐지, 찬성? 반대?
- 40 즐겁지 아니한家
아빠 작곡 · 딸 작사, 우리는 음악가족
- 44 9월의 러브레터
산청 간디중학교 3학년 이다빈의 편지

아이 + 좋아 = 공감 이야기

- 46 수업혁신 칼럼
하브루타, 수업이 아이에게 말을 걸다
- 49 딴 나라 교육 이야기
스웨덴 청소년들의 머릿속에는?
- 52 우리 역사 속 교육 이야기
전통 속에 담긴 교육의 의미
- 55 청탁금지법
- 56 독서산책
- 58 칭찬합시다

아이 + 좋아 = 경남교육 이야기

- 60 경남교육 뉴스
교육뉴스 및 의정뉴스
- 68 대입 수시모집 유의사항 및 대비법
- 70 2017학년도 후기 평준화 지역
일반고(자공고 포함)전형



정현정
창원용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박금진
함안호암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교육감과 학교운영위원장 대담

막걸리 한 사발의 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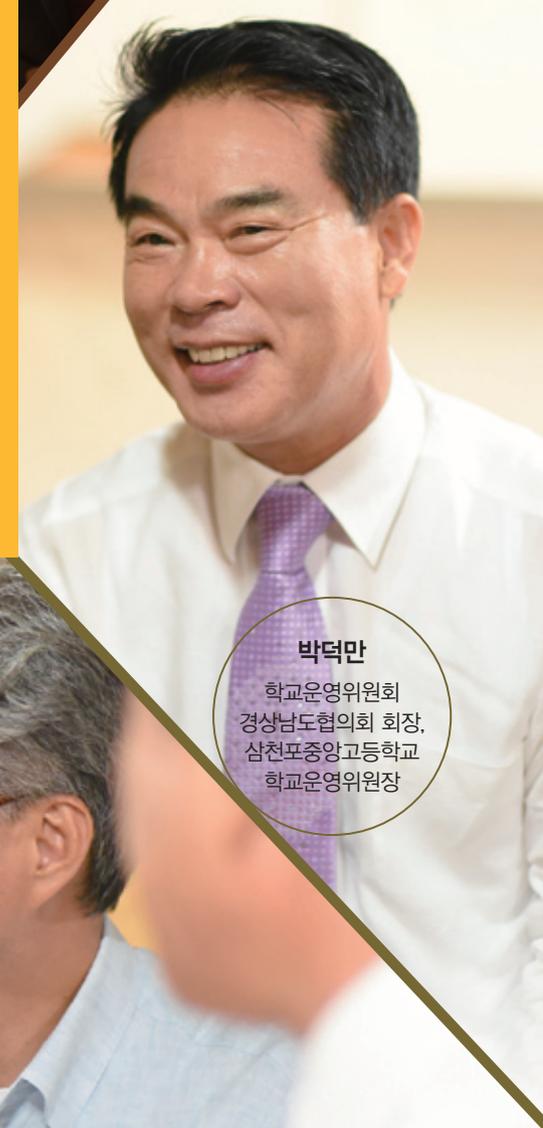
교육감과 학교운영위원장들과의 만남



오준숙
양산여자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박덕만
학교운영위원회
경상남도협의회 회장,
삼천포중앙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전국 최초 경남 도민 61만 8,651명 서명한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서’ 국회 제출



경남 도내 132개 학교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검출
“흙 운동장으로 돌아가”



뜨거운 날씨만큼 경상남도교육청도 뜨겁다.
그만큼 학교운영위원장들이 교육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다.
7월 창원의 어느 막걸리 집,
박종훈 교육감과 네 명의
학교운영위원장이
소탈한 대화를
나누었다.

교육감과
학교운영위원장
대담

✎ 취재글 김봉임 기자



지난 7월 6일, 박종훈 교육감과 학교운영위원회 경상남도협의회가 국회를 찾았다. 61만 8,651명의 도민들이 서명한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다. 지난 한 해 아이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교육감과 학교운영위원장 대담

62만 명의 급식법 개정 서명, ‘학부모의 염원을 모아 국회로’

#1

박덕만 경상남도에 학교운영위원장이 약 1,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 협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2015년 11월 1일부터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약 62만 명의 도민들이 서명했는데, 엄청난 반응이었죠.

박금진 우리 함안 지역에는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하하하) 그만큼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정현정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를 업고 서명을 하러 온 모습입니다. 어린 손자가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꼈던 거죠. 대학생들 참여도 엄청 높았는데, 동생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이어서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에 나서지 않았나 싶어요.

박덕만 무상급식이 최초로 거창에서 시작되었고, 전국에서 최초로 경남에서 급식법 개정 청원운동 서명을 벌였다는 점은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급식은 단순히 밥 한 그릇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밥을 같이 먹으며 공동체 문화를 배우고, 협동심을 배우고, 나눔을 배우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준숙 우리 양산에서도 많은 학부모님이 도와주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무상급식을 하면 아이들이 질 높은 밥을 못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유상급식을 한 이후에도 아이들이 집에 와서 배가 고프다는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더 달라는 말을 못해서 눈치를 봤다는 거죠.

박덕만 기성세대들은 지금 급식문화를 잘 몰라요. 실제로 현장에 가봐야 급식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의무교육인데, 밥만 제외 한다는 건 애초에 잘못된 사고입니다.

정현정 용호고등학교는 1,378명이 서명했어요. 창원에 많은 고등학교가 있지만 1,000명이 넘게 서명을 받은 건 용호고등학교밖에 없더라고요. (하하하) 아마도 밥을 두고 아이들을 차별하는 건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박종훈 62만 명이 급식법 개정 청원서명을 했다는 건 그만큼 급식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바람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육감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교육감과 학교운영위원장 대담

학교급식법 개정, 아직 갈 길이 멀다.

#2

박중훈 제가 얼마 뒤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약속이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법 개정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이 1조 원이 더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만만치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급식법 개정 청원을 해야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일일 겁니다. 학부모 단체에서 62만 명이 서명해 입법청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박덕만 교육감님이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저희도 시간을 두고 면담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여야 정치인들이 대부분 공감한 내용이라서,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예산 문제가 걸려서 큰일입니다.

정현정 사드 반대 서명운동만 보더라도 목표가 5만 명인데, 62만 명은 엄청난 호응이죠.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어가는 것도 학교운영위원회 몫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국회의원에게 호소의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박덕만 편지를? 좋은 생각입니다. (하하하)





교육감과 학교운영위원장 대담

경찰수사 결과, 급식비리는 업체의 담합 등의 비리로 밝혀져

#3

박덕만 한 끼 식사가 애들 식탁에 올라올 때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거든요. 영양가를 생각해서 식단표를 만드는 거죠.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급식을 두고 일부에서 비리가 있다는 건 큰 문제입니다. 바로잡는 게 당연한데,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정 일반적으로 급식비리 하면 학교의 비리로 생각하는데 수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업체의 비리로 밝혀졌죠.

박덕만 맞습니다. 문제는 업체입니다. 담합을 통한 입찰 방해, 사업자 등록은 경남에 있는데 실제 사업소는 경남에 없는 유명업체나 위장업체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급식업체에 대한 인·허가 등 관리·감독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교육청은 한계가 있습니다.

박종훈 관리·감독의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교육청이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질 높은 급식을 책임져야 함은 마땅합니다. 교육청에 학교급식 담당이 한개였는데 이번에 두 개 담당으로 확대했습니다. 한쪽은 행정적인 면을 추진하는 곳이고 또 다른 한쪽은 급식의 내용을 챙기는 곳입니다.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든 곳이죠.

오준숙 아하...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엄마들은 질 높은 급식에 대한 요구도 큰데 기대가 되네요.



교육감과 학교운영위원장 대담

전국 최초 무상급식 시행! 전국 최초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서 제출! 경남형 급식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다

#4

박종훈 네. 창원 시내를 실험적으로 먼저 하는데요, 20개 학교에서 구매하는 식재료가 2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 공산품을 중심으로 20개 정도의 항목을 공동구매하는 겁니다. 각 학교에서 제각각 구매하던 공산품을 공동구매하면 약 30~40% 예산이 절감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절감하는 예산만큼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박덕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박종훈 큰 지역은 자치단체 단위로, 작은 지역은 인근 지역을 묶어서 같이 하면 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좋은 사업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금진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을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하겠다는 얘기이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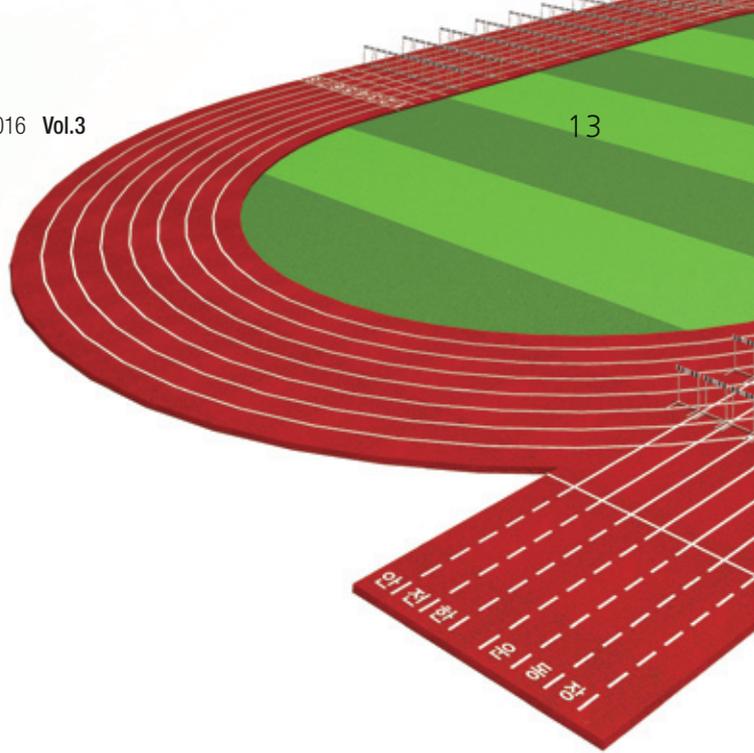
박종훈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영양사들의 실력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은 선임 영양사와 경험이 적은 영양사가 있는 학교 급식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 전에 신규 초보 영양사가 배치된 학교에서 계속

급식의 맛이 없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20~30년 경력의 영양사 두 분을 파견해서 조사했습니다. 두 분이 한 달 식단을 분석해보니까 맛이 없다는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단을 다시 짜고 컨설팅을 했더니 질이 높아진 건 물론, 한 달 식재료비의 약 10%가 절감이 되더라고요. 컨설팅만으로 약 10%를 절감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선임 선배들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컨설팅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기에 앞으로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현정 (하하하) 질도 높아지고 예산도 절감된다니, 대단하네요. 아무튼,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교육청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훈 네, 경남형 급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부터 철저한 메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실무편람'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실무 메뉴얼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모든 일간지가 호의적으로 다뤄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교육감과 학교운영위원장 대담

우레탄 트랙, 무엇이 문제이고?

#5

박덕만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하니까 학교 현장은 요즘 좀 골치가 아프죠. 설치할 때는 안전하다고 해 놓고서 이제 와서 엄청난 문제로 부각하니까 당황스럽죠. 더군다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유해물질이 쌓이는데, 안전한 운동장이 있을 수 있나 회의가 듭니다.

정현정 그렇죠. 모래는 그럼 안전한가? 아마 모래에도 유해물질이 많을 겁니다.

오준숙 우레탄을 깔기 전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오래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바꾸면 좋겠지만, 솔직히 예산 낭비도 되고 헛갈립니다.

정현정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학교에서는 당연히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박덕만 2016년도에 일본 야마구치현에 있는 유우중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 운동장은 자연 그대로를 놔둔 거예요. 다른 시설은 최첨단을 걷고 있는데, 운동장만큼은 자연 그대로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흙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엄청 뛰어놀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아이들은 체육 시설을 어떻게 이용합니까?”라고 물었더니 시립 체육관이나 시립운동장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운동장만큼은 애들한테 돌려줘야 하기에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현정 대부분 학교에서는 천연우레탄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은 천연 잔디나 마사토 같은 개념으로 모래도 들어가 있는 흙 운동장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박종훈 현재, 우리 도내에 우레탄 트랙이 깔린 학교가 19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32개 학교가 이번에 중금속이 검출되어서 걷어내야 할 판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122개 학교가 다시 우레탄으로 시공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교육감으로서 ‘우리 학교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실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또한 학교 현실이겠지요. 하지만 우레탄은 절대로 아이들의 건강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이들이 접촉해서는 안 되는 유해화학물질을 500종을 분류하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우레탄은 납, 카드뮴, 수은, 크롬 네 가지만 검사를 한답니다. 이렇게 네 개 항목을 검사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전하냐에 대해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지요.

교육감과 학교운영위원장 대담

우레탄 트랙 전면 철거가 최선인가요?

#6



박금진 심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호암중학교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감님의 이미지가 개혁과 혁신인데, 과연 흠으로 돌아가는 게 교육감님의 취지와 맞는 것인지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흠으로 했을 때 장점이 무엇입니까?”라고 전문가와 건설업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비용이 싸다”는 겁니다. “그럼 우레탄은 안전합니까?”라고 물으니, KS 규정에 맞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쓰면 된다는 겁니다. 비용은 평당 1만 원 정도 비싸지만, 친환경 우레탄을 쓰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박종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KS'에서 검사하는 게 네 가지 항목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화학물질은 유럽에서는 500가지를 검사하고, 우리는 네 가지 항목을 검사해서 안전하다고 판정하는 거죠. 많은 분이 우레탄 앞에 친환경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친환경 우레탄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개 항목만 검사를 해도 이 정도인데, 유럽처럼 세분화해서 검사하면 우레탄은 더 많은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옥시에서 가슴기 살균제가 문제가 되었는데, 가슴기 살균제가 사람을 죽일 거라는 걸 상상이나 했습니까? 아울러 전문가들의 얘기는 흠이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박금진 지금 저희 학교 교실 내의 환경이 너무 쾌적하고 좋습니다. 교실 안에 흠이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내 환경이 정말 깨끗합니다. 발에 흠이 묻어가면 교실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가 ‘기존 우레탄으로 재시공하자’가 거의 80%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박종훈

네, 저도 그게 가장 크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준치 이상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 교장 선생님, 학교운영위원장님들 260여 분을 모시고 제가 간곡하게 우레탄 트랙 철거를 부탁 드렸습니다. 교육감으로서 현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이 판명된 우레탄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학교운영위원장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장은 경기장이 아니고 놀이터’라는 개념으로 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설득을 하고 경남도의회에서 예비비 150억원을 쓰겠다는 승인도 받았습니다. 흠 운동장의 여러가지 불편함과 문제점은 해당부서와 고민 해서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박덕만

외국 사례를 찾아보니까 외국에는 우레탄 트랙 주위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맨발로 들어가지 말 것, 여기서 옷을 갈아입지 말 것, 우레탄을 활용하고 난 다음에는 손발을 항상 깨끗이 씻어라 등 안내문을 설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선 경남교육청에서도 안내문부터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훈

네, 아직 갈 길이 멍니다. 특히 복병이 하나 도사리고 있는데, 우레탄을 걷어내서 처리할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명이 다한 우레탄 트랙을 처리할 업체가 없어서 깔고 있었던 거죠. 그럼, 132개 학교 운동장에 철조망을 쳐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느냐? 정말 웃기는 일 아닙니까?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준숙

그러면 지금까지 우레탄을 깬 학교에서는 한 번도 보수공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게 아닙니까? 업체가 없다는 것은?

박종훈

보수를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해왔고, 지금처럼 한 학교가 아닌 132개 학교를 동시에 보수하려 할 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박덕만

어려움이 많더라도 학생들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오늘 여러 가지로 소통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에 또 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종훈

다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충고 부탁드립니다.

행복학교 탐방

아이도 교직원도 학부모도 다함께
행복학교를 향해 GoGoGo!

거제 내곡초등학교

취재·글 김봉임 기자

「잘 놀아야 잘 크다」

누구나 다 아는 단순한 진리다.

그만큼 「놀이는 아이들의 특권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선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놀 시간이 없어서, 놀 공간이 없어서, 놀이를 몰라서,

친구야! 놀~~자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다.

2015년 3월에 개교한 거제 내곡초등학교,

올해부터 행복학교를 시행하면서

학교를 넘어 지역에 새로운 놀이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아이도 교직원도 학부모도,

「혼자가 아닌 다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거제 내곡초등학교를 찾았다.



"친구야! 놀~~자"



오전 10시 20분 중간놀이 시간,
운동장 뒤편 그늘진 공터로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진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줄 흐르는 무더운 여름,
하지만 놀고 싶은 아이들의 열정을 막을 수 없다.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놀이 삼매경에 빠진 아이들,
다가가 자세히 보니... 어랏? 추억의 놀이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오락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학교 아이들은 오징어 달구지, 고무줄 뛰기,
돈가스와 같은 추억의 놀이를 하면서 놀아요.”

고무줄놀이, 사방치기, 돈가스, 오징어 달구지, 공기놀이...
이름만 들어도 추억이 돋는 놀이들,
지금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오락에 밀린 지 오래다.
부모 세대들에게 익숙한 추억의 놀이를
내곡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우리 학교에 학부모 놀이 동아리가 있는데,
시간이 생겨도 놀이를 몰라서 못 노는 아이들을 위해
학부모들이 직접 와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고무줄 뛰기, 돈가스를 한다급쇼?





80여 명이 참여하는 학부모 놀이 동아리 회원들,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는 아이들의 처지가 안쓰러웠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릴 적 놀았던 놀이를 가르쳐 주기로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릴 적 추억의 놀이를 기억하는 게
 쉽지 않았다.
 몇 달 동안 공터에 모여 가물가물해진 기억을 되살리고,
 조합해 새로운 룰을 만들었다.

“저희도 기억을 되살려야 했어요.
 고무줄 뛰기나 오징어 달구지를 한 지가 오래되었잖아요.
 룰도 조금씩 생각하는 게 다르고,
 부모들의 기억을 조금씩 조합해서 몇 달 동안
 룰을 만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이 고생이 많았죠. 하지만 보람도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무료하게 지냈는데,
 학부모 놀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사라진 열정을
 다시 찾을 수 있어서 기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능지수, 감성지수를 생각하며
 놀이마저 공부하는 요즘 아이들,
 친구들과 막 어울려 노는 즐거움을 잘 모른다.
 그래서일까? 처음 아이들에게 놀이를 선보이던 날,
 아이들의 반응은 시원찮았다.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로선
 다 함께 배우고 다 함께 뛰어노는 것을 어색해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게임이 더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가스 놀이를 하다 보니 너무 재미있었어요.
 요새는 친구들과 학원을 마치고
 아파트에서 학교에서 배운 놀이를 하면서 놀아요.”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놀이는 고무줄 뛰기다.
 고무줄 뛰기 매력에 한 번 빠진 애들은
 고무줄 뛰기만 고집한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남학생들도 고무줄 뛰기를 즐긴다는 것이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자애들은 고무줄 뛰기를 하고
 남자애들은 고무줄을 끊는 재미를 즐겼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사라졌어요.
 남자애들도 고무줄 뛰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잘 노는 아이들이 최고로 대접받는 거제 내곡초등학교,
 유일하게 대회가 있다면 놀이대잔치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미친 듯이 노는 대회다.

“우리 학교에는 다른 학교처럼
 영어 말하기 대회나 글쓰기 대회 같은 대회가 없는데,
 유일하게 놀이대잔치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잘 놀아서 그 열정을 좀 더
 폭발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노는 아이들을 칭찬하기 위해서죠.”



학부모 만족도는 최고! 교직원 만족도는 글썄...

새로운 놀이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제 내곡초등학교,
학교 담장 너머 지역의 놀이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느 날 학부모가 사진을 찍어 보내 왔더라고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원을 그려놓고
돈가스 놀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 하는 일이죠.”

놀이동아리, 그림책 읽어주는 동아리, 봉사동아리,
3개 학부모 동아리가 있는 거제 내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그만큼 학부모들의 행복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얼마 전에 행복학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약 560여 명의 학부모들이 응답하셨는데,
행복학교에 대해 만족한다고 하신 분들이 82%, 보통이 16.5%,
불행하다 0.5%, 나머지가 잘 모르겠다고 답하셨어요.
그만큼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다는 거죠.”

행복학교 시행 1년이 되는 거제 내곡초등학교,
10명 중 8명의 학부모가 만족한다.
그렇다면 교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교직원 만족도도 조사했는데, 53.2%가 행복하다고 응답했어요.
보통은 27.7%, 불행은 14.7%, 잘 모름은 4.4%로 나왔습니다.”

학부모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교직원들,
이유는 간단하다. 일반 학교보다 행복학교는
교직원이 더 많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교생이 1천여 명에 달하는
거제 내곡초등학교는 더 힘들다.

“교직원이 행복하지 않은 학교는 행복학교가 아닙니다.
좀 더이지만, 아이들과 학부모와 교직원이 다 함께
천천히, 그리고 길게 행복학교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거제 내곡초등학교 교장 엄태철]

행복학교는 아이들만 행복한 학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학부모도 교직원도 행복한 학교여야 한다.
거제 내곡초등학교가 지향하는 행복학교다. 





별별
꿈이야기

취재:글 김봉임 기자

프로 구단 스카우트들이 말을 합니다.

“그냥 선수가 아니라
대형 선수가 될 유망주입니다.”

현재, 이 선수를 지도하는 감독이 말합니다.

“실력도 좋으면서
인성도 좋은 선수는 별로 못 봤습니다.”

같이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후배 친구들이 말합니다.

“평소엔 얌전하고 내성적인데
경기만 시작하면
엄청 적극적으로 변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자신에게 말합니다.

“항상 부지런히 연습하는
성실한 선수가 되자.”

실력만큼 인성도 좋은
오늘보다 더 내일이 기대되는 유망주
평소엔 내성적! 경기에선 강한 멘탈의 소유자!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누구일까요



나 종 덕

아마추어 야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다.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대만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아시아 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18세 이하)에 국가대표로 발탁될 만큼
대한민국 야구를 이끌어 갈 차세대 유망주다.
현재, 2017 프로야구 신인 2차 지명이 유력한 나종덕 선수,
그를 만나기 위해 마산용마고를 찾았다.
불볕더위 속 오후 훈련이 한창이던 때, 나종덕 선수를 만났다.
오늘의 주인공!
186cm, 90kg이 넘는 거구와 달리
아기처럼 순수한 눈빛을 지녔다.

“무학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감독님이 아버지 친구분이셨는데,
제가 6살 때 두 분이 야구경기를 보면서 약속을 했대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야구를 시키자고...”

아버지의 판단은 옳았다.
무학초등학교, 신월중학교, 현재 용마고등학교까지,
전국대회에서 굵직한 상을 받을 만큼 될성부른 나무가 되었다.
그리고 현재, 아시아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뽑혔다.

“대표팀에 뽑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얼떨떨했는데,
서울에 소집되어 유니폼을 맞추니까 실감이 나고 기분이 좋았어요.
8월 19일에 대표팀이 모여서 9일 동안 연습하고 대만으로 가는데,
부담도 되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나종덕 선수, 현재 아마추어 야구에서 내로라하는 포수다.
지난 8월 22일 2017 KBO 신인 2차 드래프트에서 전국 아마추어 선수 가운데
세번째로 롯데에 지명됐다. 프로구단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솔직히 가문의 영광이죠.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NC는 아니지만 저도 사랑해주세요.(하하하)”



“나~~~ 종덕이에요!”



Profile

신체 186cm 91kg

학력 마산용마고 3학년 재학중

포지션 포수

수상 경력

2013년 야구인의 밤 중학교 최우수 선수상

2016년 전국고교야구주말리그 전·후반기 타점상

2017년 KBO 신인 2차 드래프트 롯데 지명

박찬호를 시작으로 추신수, 류현진, 이대호와 같은 꿈의 무대라는 메이저리그에서 호령하는 선배 선수들을 보면서 야구 꿈나무들은 자신의 꿈을 키워간다. 하지만 전국 고교야구 선수 가운데 프로 구단으로 스카우트되는 선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욱이 프로구단에 입단하더라도 주전으로 뛸 확률이 높지 않다. 나종덕 선수는 앞으로 프로구단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프로구단 스카우터들이 종덕이를 보러 오면 그냥 선수가 아니라 아마도 대형 선수가 될 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웬만한 프로구단 포수들의 고교 시절과 비교하면 훨씬 실력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무엇보다 인성이 참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엘리트였는데, 겸손하고 성실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농땡이 쳐 본 적이 없습니다. 간혹 좀 잘한다고 거들먹거리는 선수들이 있는데, 결국 크게 되지 못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종덕이는 아마도 큰 선수가 될 겁니다.”

[마산용마고 야구부 김성훈 감독]

많은 이들이 나종덕 선수의 장점을 장신 선수들이 가지기 힘든 유연성을 꼽는다. 그만큼 탁월한 균형 감각을 자랑한다. 그렇다면 나종덕 선수는 포수로서 스스로 갖춰야 할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일단, 머리가 좀 좋아야 할 것 같아요. 유일하게 상대 팀을 바라보는 포지션이 포수인 만큼 머리가 나쁘면 안 될 것 같아요. 상대 팀을 빠르게 분석하고 상대 팀의 타자가 못 치게 하려면 볼 배합을 잘해야 하니까요.”

Na Jong-deok



스스로 머리가 좋다는 얘기인가?

“하하하... 그렇다기보다 좀 대범하긴 한 것 같아요.
평소에는 성격이 내성적인 편인데, 야구를 할 때는 달라져요.
제가 빨리 판단하고 파이팅을 해줘야 하니까,
적극적이고 대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처음 만났을 때와 눈빛이 달라졌다.
야구 이야기를 할수록, 포수의 자질을 논할수록,
나종덕 선수의 눈빛이 살아난다.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나아가야 할 지금,
지난 야구인생은 짧고 앞으로 야구 인생은 길다.

“박경완 선배님과 같은 공격형 포수가 되고 싶어요.
타격도 잘해서 팀의 승리에 기여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지만
아직 실력이 모자라죠.
하지만 열심히 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어요.”

Fighting

더운 여름, 누구보다 포수는 힘들다.
무거운 헬멧, 두꺼운 마스크는 피부병을 일으키고,
늘 앉아있어야만 하는 포지션은 하체에 무리를 준다.
하지만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많은
나종덕 선수에겐 이까짓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큰 선수가 되기 위한 꿈을 향해
오늘도 묵묵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다. 



1975년 거제 송진초등학교

“20대 초반, 제가 처음 발령을 받은 학교죠.”

41년 4개월...

“처음 가르쳤던 제자들이 50대예요.

가끔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이제는 거의 친구죠.”

496개월

“거제 송진초등학교에서부터 현재 삼계초등학교까지
13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14,880일

“90년대 초에 아이들과 함께 자작곡 만드는 수업을 시작했는데,
아이들의 세계를 더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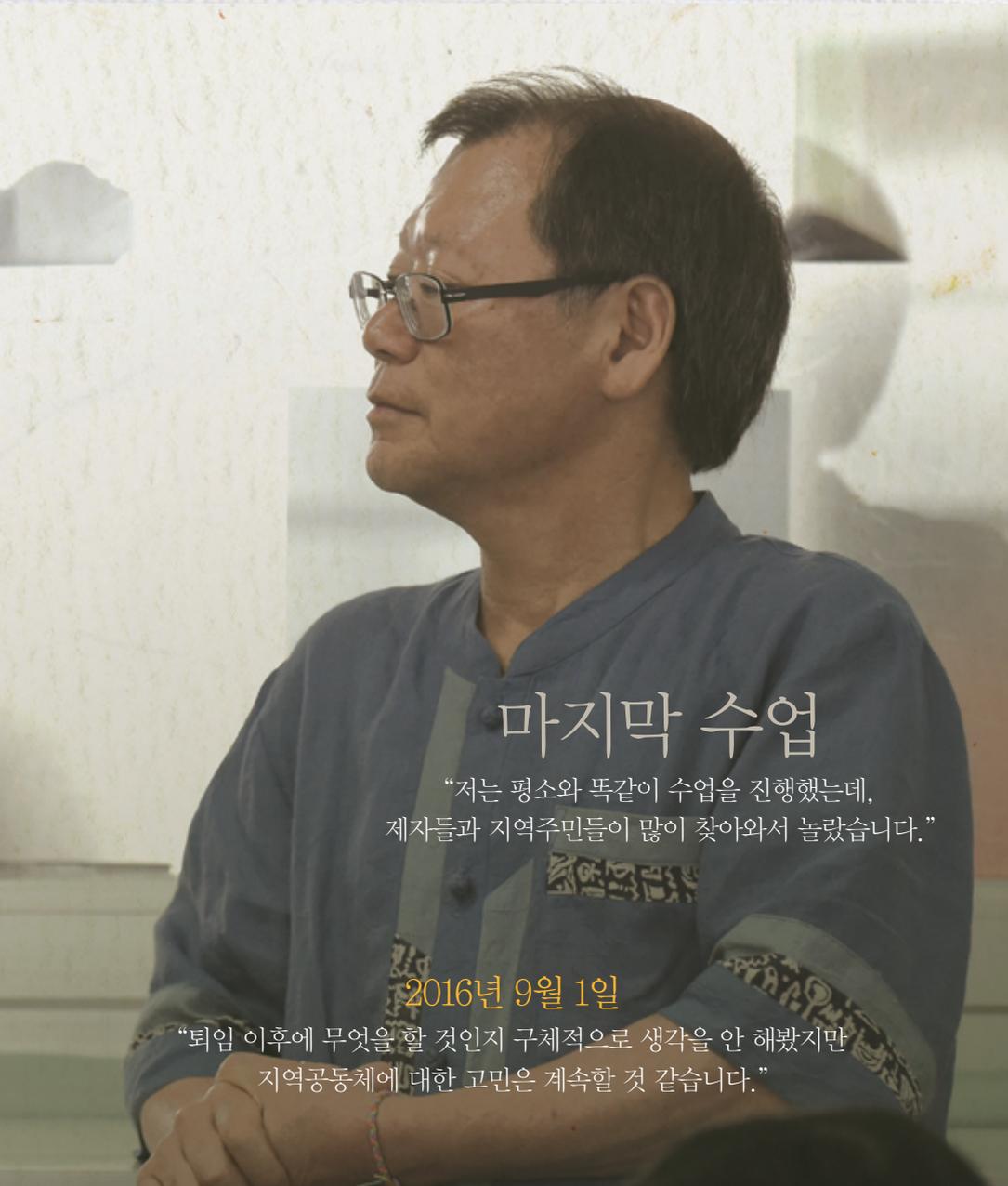
357,120시간

“제가 어릴 때, 차별하는 선생님이 싫었어요.
그래서 편애하는 교사가 아닌 똑같이 아이들을 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직생활 41년 4개월
송인세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

열혈교사
도전기

취재 글 김봉임 기자



마지막 수업

“저는 평소와 똑같이 수업을 진행했는데, 제자들과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놀랐습니다.”

2016년 9월 1일

“퇴임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지만 지역공동체에 대한 고민은 계속할 것 같습니다.”



7월 22일, 마산 삼계초등학교.

41년 4개월 동안 아이들을 가르친 송인세 교사의 마지막 수업이 시작됐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생들이 직접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 부른 음악 동영상을 발표하는 수업, 송인세 선생님은 담담했지만 보는 이들은 몽클했다.

나이 50이 넘는 초창기 제자들은 추억 속으로, 동료 후배 교사들은 아쉬움으로, 지역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온 이웃들은 고마움으로, 송인세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을 참관했다.



똥 똥 황금 똥 / 떡가래같이 찰지고 / 쑥 빠지는 똥 / 자고 일어나서 누는 똥 / 내 팔뚝만큼
굵은 똥 / 강아지가 똥 닦는 거 봤냐 / 닦을 것이 없는 똥 / 구수한 냄새가 나는 똥

[작사·작곡] 송인세

마지막 수업이 있던 지 2주 후, 송인세 선생님을 마산 내서에서 다시 만났다.

“음악 선생님인데, 노래는 좀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좀 하죠~” 빠지 않고 시원하게 한 곡을 뽑았다.

당신이 작곡한 똥에 관한 노래였다. 아이들이 똥을 너무 좋아해서 만든 노래라고 했다.

송인세 선생님뿐만 아니다. 송인세 선생님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자신만의 자작곡을 하나쯤 간직하고 있다.

“93년쯤부터 자작곡 만드는 수업을 진행했어요.

어릴 적에 아이들이 모래 장난을 하고 놀 때면 똥가를 흥얼거리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입학해서 오선지에 콩나물 대가리를 갖다 내밀면 막 머리를 쥐어뜯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오선지만 걷어내 버리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노래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라고요.

이론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음악을 만드는 수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선지에 그려진 악보를 치웠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수업 태도가 달라졌다.

자기 이야기가 담긴 노래를 짓기 위해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다.

진짜 음악 수업이 시작된 것이다.

“요즘 아이들이 매일매일 학원도 다녀야 하고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한 번씩 써보면서 마음을 푸는 거죠.

어쩔 땐 ‘학교 극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건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가자’며 비밀에 부치죠.”



선아야! 많이 아프나? / 엄마가 병원에 데리고 갈까? / 오지 마라, 괜찮다. /
 엄마에게 괜찮다 하던 내 입술이 / 너무 너무 원망스럽다. / 아직도 내 배는 정말 아픈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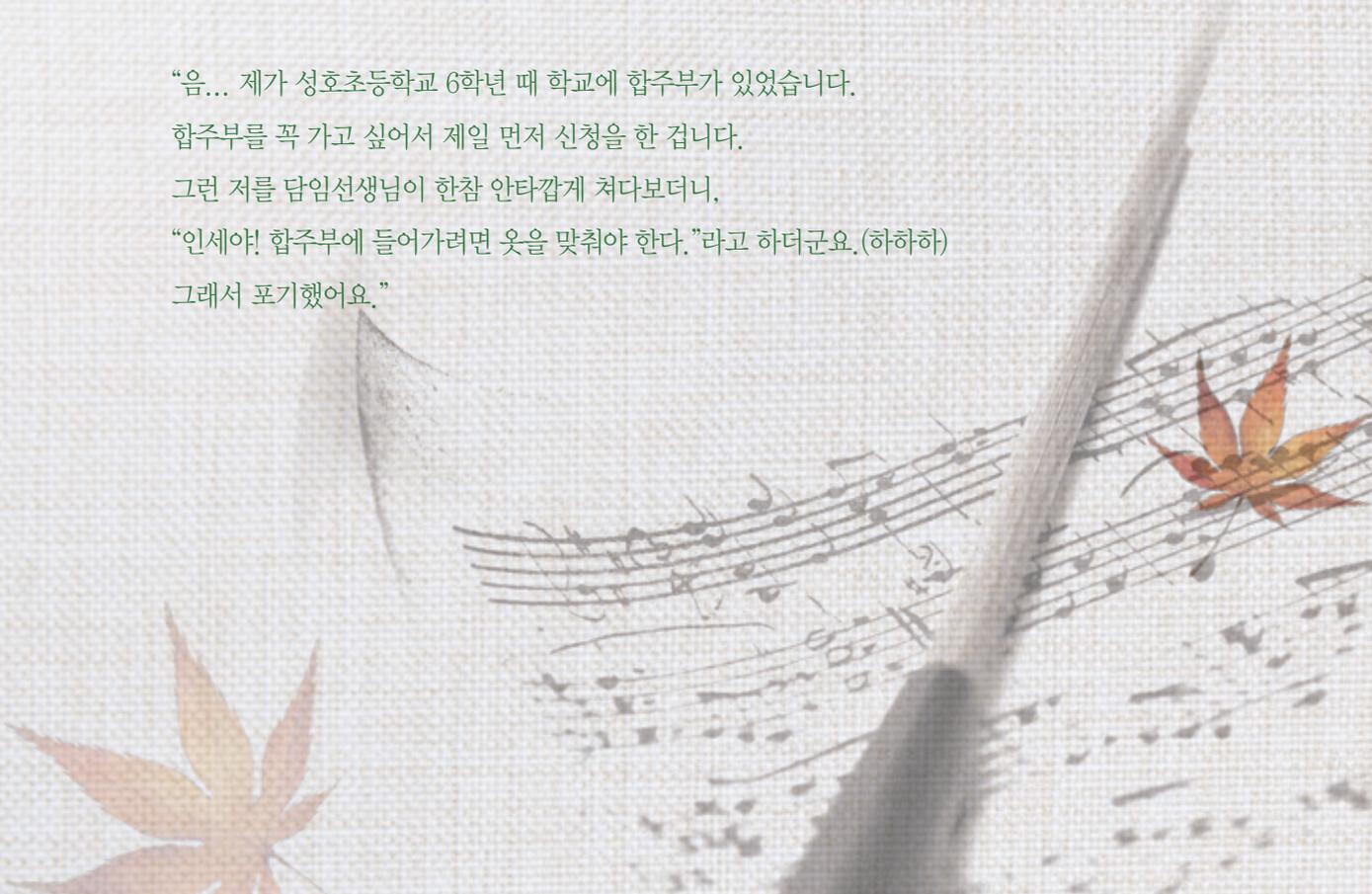
[90년 초 제자의 자작곡]

아이들의 노랫말을 보면 아이의 마음이 보인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 제자가 지은 노래를 잊을 수가 없다.

“가난한 동네였어요. 일하러 나간 엄마가 조퇴를 하면 일당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아이는 배가 아픈데도 괜찮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괜찮다고 말한 자신의 입술을 닦한 거죠.
 수업시간에 노래를 발표했는데, 그 동네 아이들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한 아이가 노래를 불렀지만 듣는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한 거죠.”

가난한 가정형편을 걱정하던 아이의 마음을 짝하게 지켜본 송인세 선생님,
 당신에게도 가난한 어린 시절이 있었다.

“음... 제가 성호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 합주부가 있었습니다.
 합주부를 꼭 가고 싶어서 제일 먼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 저를 담임선생님이 한참 안타깝게 쳐다보더니,
 “인세야! 합주부에 들어가려면 옷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더군요.(하하하)
 그래서 포기했어요.”





송인세 선생님

송인세 선생님 뱃살은 똥배 / 머리는 반짝반짝 너무 잘생겼다. / 그리고 한복패션은 오진다.

[작사 · 작곡] 6학년 3반 김경환

올해, 삼계초등학교 6학년이 지은 자작곡이다.
 거침없이 송인세 선생님을 표현하고 있다.
 할아버지뻘 되는 선생님과 손녀 같은 제자, 소통하는 데 문제는 없었던 걸까?

“20대 때 가르쳤던 제자들과 소통이 쉬웠죠.
 당시에는 그냥 애들한테 “자~ 바닷가에 가서 놀자!” 하면 “좋아요~” 라고 따랐거든요.
 충각이었으니까 주말이면 매일 같이 놀았죠. “선생님! 국수 삶아주세요!” 라고 하면
 국수에 라면을 하나 딱 넣어서 끓여줬죠.
 그때 촌에서는 라면이 귀한 음식이라 각각 한 개씩은 못 먹고
 국수에 라면 하나를 넣어서 먹었죠.”

‘키운다’가 아닌 ‘키워 보낸다’는 개념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한다는 송인세 선생님,
 퇴임을 앞두고 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거지만 아이 입장을 생각하면 키워서 보내야 합니다.
 아이는 품 안에 끼고 평생 살 수 없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부모를 떠나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아이들을 대해야지,
 온실 속의 화초처럼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해서 안 됩니다.
 먹이를 줬으면 새는 날려 보내는 게 맞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곡을 만드는 파격적인 음악 수업 외에도
 송인세 선생님 하면 전교조, 푸른 내서 주민회 활동이 떠오른다.
 학교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와 지역을 고민해온 삶이다.

9월 1일, 41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지금, 선생님의 앞으로 꿈은 무엇일까?

“신용복 선생님 말씀처럼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은 해가 바닷가에서만 뜨는 줄 알고
산골에서 사는 사람은 해가 산골에서만 뜨는 줄 아는 사회는 서로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 첫 시작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송인세





열혈교사
도전기
✍ 취재·글 김봉임 기자

소공녀, 교육장이 되다

함양교육지원청 김정옥 교육장



함양군 서상면 대로마을,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6남매 중 맏딸로 태어났다.
 가난한 형편에 공부를 시킬 수 없었던 아버지는 큰딸 정옥을 청주 이모 집으로 보냈다.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며 학교에 다닌다는 조건이었다.
 배움은 즐거웠지만 10대 소녀가 감당하기에 집안일은 벅찼다.
 허드렛일에 지칠 때면 정옥은 자신을 스스로 '소공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꿈을 버리지 않았다.
 어려운 현실을 뚫고 대학을 가고 교사가 되고 교감, 교장이 되었다.
 그리고 올해 초,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취임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맏딸이 술한 역경을 뚫고 교육장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금의환향(錦衣還鄕)이라고 말하기엔 식상하다. 입신양명(立身揚名)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하다.
 소원성취라고 말하기엔 아직 남은 인생이 길다.
 함양교육지원청 김정옥 교육장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까?
 김정옥 교육장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다.

소녀 같은 순수한 눈매를 지녔다. 조곤조곤한 말투에서 깊은 내공이 느껴졌다.
 곱게 차려입은 생활 한복에서 품격이 느껴졌다. 함양교육지원청 김정옥 교육장의 첫인상이다.
 “안녕하세요?”라는 말 대신 “소녀 같으세요.”라는 첫인사가 절로 나왔다.

“소녀요? (하하하) 감사합니다. 어릴 적에 제가 소공녀를 좋아하긴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여자가 공부를 많이 하면 팔자가 사나워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공장으로 가거나 객지에 식모살이로 보내곤 했어요.
 없는 살림에 입을 하나라도 털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제가 조금 아까웠나 봅니다.
 그래서 청주에 있는 이모에게 부탁했어요. 학교에 다니는 대신 집안 살림을
 제가 맡아 하는 조건으로 이모집 더부살이를 하게 된 거죠.
 이모도 시댁 어른들과 함께 살았기에 친정조카를 거둔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대 소녀에게 집안의 허드렛일은 버거웠다.
 하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쁨에 고생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다.
 자신을 스스로 소공녀라고 생각하며 슬픔을 이겨냈다.

“방학이 되면 함양 고향으로 내려오곤 했는데,
 교복을 입은 제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했어요. 배움에 대한 욕심이 컸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은 달랠죠. 다시 청주로 보낼 때면 언제나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생하는 딸이 안쓰러우셨나 봐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업고등학교로 진학했다. 하지만 취업이 아닌 대학 진학을 꿈꿨다.
 주변에선 은행에 취직해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기를 바랐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모부가 금융계 쪽에 계셨는데, 모두가 은행에 취직하기를 바랐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가 은행에 취업하면 아주 잘 된 일이었는데,
 저는 무조건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학년 때까지만 주산, 부기 등 상고 공부를 하고
 2학년부터는 대학입학을 목표로 공부했어요.
 결국, 충북대학교 가정교육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70년대, 여성이 자기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답은 교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범대를 선택했고 원하는 대로 교사가 되었다.
 그냥 교사가 아닌 수업을 즐기는 교사가 되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수업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학생보다 제가 더 제 수업을 즐긴 거죠. 자아도취에 빠졌다고나 할까요. (하하하)
 아무튼 신이 났습니다. 돌아보면 30, 40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교사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이 합천고등학교였는데,
 몇 년 전, 그때 가르쳤던 제자를 연수 때 만났어요.
 저는 교장, 제자는 교감으로 말이죠. 당시엔 엄청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된 겁니다. (하하하)”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김정옥 교육장,
 더 많이 사랑하는 교육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마지막 근무지인 함양교육지원청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마음 같아서는 많은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하고 싶은 일을 하나만 꼽으라면 함양도서관을 조금 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유용한 도서관을 만들고 싶은데, 잘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시작하면 뒤에 오는 교육장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돌아보면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아왔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 퇴임 이후에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퇴직하고 나면 두 가지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다른 이들과 나누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고,
 또 다른 하나는 어릴 적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림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김정옥



“가을 서정”
이재돈 [어방초 교장]



“자작나무숲”
김길준 [김해여중 교사]



경주 도리마을 “은행나무숲”
김환옥 [분성초 교사]



주님여명 “연”
이재돈 [어방초 교장]



“만남”
안남수 [김해금동초 교감]

[김해 빛사랑 사진연구회]

교사 사진동아리 작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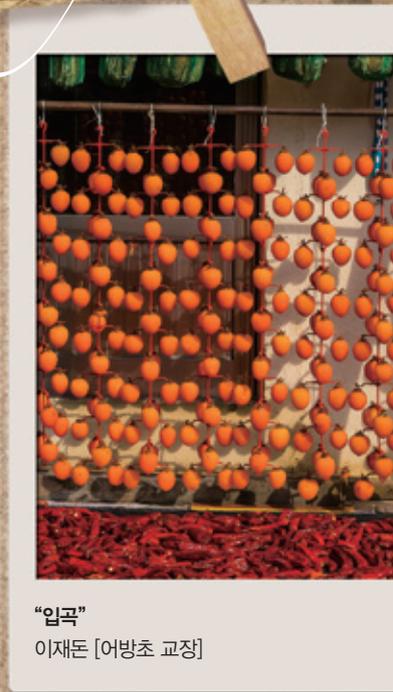
쉬어가는
코너



Photo gallery



“화포여명”
이재돈 [어방초 교장]



“입곡”
이재돈 [어방초 교장]

반 대 와
찬 성 이
통 하 는
경 남 교 육

9월의 주제

야간자율학습 폐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당신의 의견을 달아주세요!**

'아이좋아 경남교육' 공식 페이스북과 카카오토리에서 한 가지 토론 주제로 펼쳐지는 다양한 의견들을 담았습니다.

불통이 아닌 소통을 위한 경남교육의 노력은 온라인상에서도 이어집니다.



facebook <https://www.facebook.com/gneducation>



김지선 좋은 토론 주제 감사합니다. 야간자율학습. 그 명칭 그대로 자율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 시스템은 자율이 아니라 '강제'라는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반대합니다. 또한 밤 10~11시 이후의 충분한 수면이 청소년의 권리일 뿐 아니라, 학습능력과 낮 시간 집중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 야간 자율학습은 이러한 수면시간을 줄이고 늦출 위험이 있다 생각합니다. **좋아요 · 답글 달기** 👍 1 8월 15일 오전 10:07

배경환 아이들 잡아두고 불만 번듯이 켜놓으면 공부 잘 시키는 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 시간에 학교에 없으면 사고 친다고, 그리고 앉아있으면 무엇이라도 배운다는 고리타분한 관리자들의 생각! 이제는 버려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맘껏 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믿고 스스로 자신의 진정한 꿈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도 아이의 꿈을 위해 함께 해야 합니다. 야밤의 불 켜진 학교 안에서 우리아이들이 공부만하고 있다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아요 · 답글 달기** 👍 2 8월 15일 오전 11:54

최근희 자율로 했으면 합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는 것이면 더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좀 더 자율적,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시간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하지 않을까요. **좋아요 · 답글 달기** 👍 1 8월 17일 오후 7:30

서유원 자율학습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율을 빙자한 강제학습이지? **좋아요 · 답글 달기** 👍 0 8월 20일 오전 9:30



Heejun-Kim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자의적으로 더 할까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모든 학생이 교육을 자기 주도적 학습을 경험했다면 물론 찬성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강한 교육, 주입식 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강한 교육을 받던 아이들이 강제적이지 않은 학습을 한다면 아마도 절반 이상은 긴장의 끈이 풀려 공부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라고는 하나, 그게 지속된다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도태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좋아요 · 답글 달기** 👍 1 8월 10일 오전 8:14

신은희 반대합니다. 저는 고3 수험생의 부모입니다. 아이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 학교에서 힘을 다하고 집에 돌아와 여유 없이 또 책상 앞에 앉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가슴이 아프고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우리 아이들을 실 수 있게끔 하는 사회는 아닙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야간자율학습은 이런 낙오자가 최소한으로 생기게끔 하는 안전장치라 생각이 되네요. 폐지하겠다면 그 이후에 나올 피해를 최소화 할 만큼의 사회 제도적 개선이 불가피할 거라 봅니다. **좋아요 · 답글 달기** 👍 1 8월 12일 오전 10:20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학생이 자율학습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의 동의하에 자유롭게 가정학습 등이 가능합니다. 가정 내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일관된 의견을 담임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규교육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없었던 토의·토론·실험, 동아리 연계활동 등을 방과후 자율학습 시간을 활용하여 참여함으로써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 유익한 활동의 시간을 가지도록 학교에 권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상대동〉 음악으로 하나 되는 가족

우리는 음악가족,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무대



이정희(42)

임병재(46)

임주하
(도동초 3학년)

임서영
(도동초 1학년)

음표로 가득한 집이 있다. 웃음소리도 꼭 음표같이 리듬이 있는 곳, 노래하는 가족
임주하 · 임서영 자매의 집이다. 서로의 마음을 글과 음악으로 전하고 그런 마음에
서로 귀 기울이는 가족, 서로의 소중함을 진짜로 실천하며 산다. 막내 서영이가 노래
를 흥얼거리면 화음을 넣는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는 오카리나 연주를 곁들인다.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무대가 된다. 그리고 행복이 꽃핀다.



취재 · 글 김수미 작가

날마다 떠나는 음악 여행

주하 · 서영 가족은 올해 진주시 가족 장기자랑에서 음악가족의 면모를 한껏 발휘
했다. '통일여행'이라는 자작곡으로 아빠는 기타, 엄마는 멜로디언, 언니는 오카리나,
막내는 노래와 율동을 담당했다. 이 무대가 처음은 아니었다. 지난해에는 진주시
초전동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서 가족팀으로 나가 2등을 수상한 바 있다. 사람들
의 호응은 물론 집안 살림도 장만했다. 거실에 큰 공간을 차지하는 제습기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통일여행'이라는 곡은 서영이가 다섯 살 때 어린이집 등원길 차 안에서
흥얼거리던 것이 모티브가 되었다. 아빠 병재씨는 두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줄곧
도맡았는데 10분 거리의 차 안은 여행길이 되고는 했다. 바로 음악 여행. 떠다니는
구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 길 위의 자동차들, 그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영감
을 주었고 아이들이 흥얼거리면 늘 즐겁게 들어주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했다.



다섯 살 때인가 서영이가 부릉부릉 자동차가 나아갑니다,
신나게 달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화음을 넣고 가사를 더 다듬어서 노래를 만들었지요.
그 노래가 바로 통일여행입니다.



남다르게 아이들의 노랫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엄마, 아빠도 노래로 사랑
이 싹튼,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결혼하기 전까지 부부는 노래패에
서 함께 노래를 불렀고 정희씨는 아이들을 키우며 짬짬이 오카리나 강사 일을 했다.
아빠 병재씨는 현재 음악과는 무관한 일로 돈을 벌고 있지만 일 년에 몇 번은 무대 위
에 선다. 최근에는 엄마 정희씨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창단을 모집해서 부부가 함께
활약할 예정이다. 사실 아빠 병재씨는 아이들이 동요대회에 나가는 것이 꿈이었다.
그런데 가족 모두가 무대에 섰으니 앞으로 아이들의 또 다른 무대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딩동, 오늘도 배달된 감사편지

큰딸 주하는 시 쓰기가 취미다. 돌돌 말린 동시들을 보물 꺼내듯이 펼쳐 보인다. “그냥 썼는데 시가 되었다”는 주하의 말은 머지않아 훌륭한 노랫말의 탄생을 예고하는 듯했다. 둘째 서영이는 감사편지 쓰는 것이 취미다. 그래서 병재·정희 부부는 편지 부자다. 편지의 주테마는 ‘정말 정말 정말 좋아하는 엄마, 아빠’이다. 처음 감사편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선명하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정말 정말 정말 좋아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저희는 최소한의 숙제를 했으면 더 이상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느라 온종일 밖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집에서는 좀 마음껏 쉬면서 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저희 부부의 합의된 교육 철학입니다. 아이의 행복이 제일 우선이죠.



아이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무조건 사랑하게 된 데에는 사실 아픔이 서려 있다. 이들 부부는 첫 아이를 가슴에 묻고 비로소 진정한 부모가 되는 준비를 시작했다. 그칠 것 같지 않던 폭우도 어느덧 잠잠해지고 구름 사이로 해가 다시 비쳤다. 주하와 서영이의 존재는 이 부부에게는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애쓰지 않아도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심장이 알려주기 때문이다.





빛나는 눈동자, 솜사탕 미소

행복한 아이는 온몸으로 그 기운을 발산한다. 첫째 주하는 말하는 동안 서서히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빛나는 눈동자를 가졌다.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똑 부러지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둘째 서영이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솜사탕 미소의 소유자다. 말보다는 미소로 이야기하는 서영이는 여름 과일처럼 싱그럽다. 수줍은 듯 머금은 미소는 사람을 무장해제시킨다.

아이들의 행복은 부부의 행복에서 비롯됐다. 이들 부부는 아주 정확하게 집안일을 분담하고 서로의 일에 대해서는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엄마는 요리와 설거지, 아빠는 빨래와 쓰레기 버리기를 담당하고 있다. 무대에서의 자기 역할만큼 분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서로 바빠도 자기 일은 자기가 하고 남 탓을 하거나 자신의 힘든 사정을 몰라 준다며 서운해하는 일이 없다. 다투는 일 없는 부부는 아이들과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다.



서로에 대해 서운할 게 별로 없어요.
결국은 자기 일이 되니까 간섭하지 않고
또 미루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이들 부부는 젊었을 때부터 세상이 좀 더 살맛 나고 사람들이 더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노래를 했었다. 그렇게 노래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이들 부부는 먼저 상대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사랑을 실천한다. 그 사랑을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하며 아이들을 웃게 해주려 노력했다.



생각만 하는 것은 힘이 없다.
생각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해야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그것도 내가 먼저, 술선수범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을 사람들은 간혹 잊고 산다. 바쁘다는 이유로 힘이 든다는 이유로, 누군 위해서 바쁘지를 까마득히 잊고서, 서로의 소중함을 잠시 잊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세레나데를 불러보자. 서로를 온 마음으로 안으며 함께 행복을 노래하는 이 가족처럼, 오늘도 웃음소리가 음표가 되어 문밖으로 새어 나온다.



9 엄마의 러브레터



이다빈
산청 간디중학교 3학년

사랑하는 엄마, 아빠

일주일 뒤에는 나도 개학이네. 엄마, 아빠 덕분에 방학이 조금 더 긴 학교에 다니는 기분은 방학 때 더 짜릿한 것 같아. 처음에는 엄마랑 아빠가 간디학교를 권유할 때 간디학교 안 가고 싶다고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다니고 싶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나는 절대 간디학교에 온 걸 후회하지 않아.(물론 해외이동학습 때문에 새카맣게 타 버린 점 빼고...) 이제 개학이면 3학년 졸업 작품 때문에 집에 자주 못 와서 자주 못 보겠다. 그치?

2년 전에 간디학교에 입학했던 일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고등학교를 찾고 있어. 입학할 때는 '내가 집을 떠나서 기숙사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집에 자주 못 가서 가족들이랑 멀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졸업이 다가오는 지금 생각해보면 다 쓸데없는 고민이었던 것 같아.

가장 사춘기가 심한 중학교 시절을 집이 아닌 학교에서 지내다 보니깐 사춘기에 겪게 되는 불필요한 짜증들을 엄마, 아빠한테 보여줄 수 없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 또 기숙사에 살면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고 확실해졌어.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는 것이 마치 큰일이었는데, 간디학교에 오고 나서 친구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사니깐 여기저기 친구 집에 스스로없이 갈 수 있는 것도 다 간디학교 덕분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간디학교 다니면서 엄마, 아빠에 대해 느낀 점은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엄마, 아빠랑 보는 시간도 적어지고 어쩔 때는 한 달 만에 본 적도 있잖아. 그러면서 사이가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었는데 엄마랑 아빠가 많이 노력을 해줘서 우리가 매일 보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



1학년 때는, 학교에 적응하기 바빠서 그런 점을 잘 몰랐다면 3학년이 된 지금은 사소한 것까지 조금씩 보인다거나 할까? 엄마, 아빠가 노력해주지 않았다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집이랑은 많이 멀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음... 내가 간디학교 다니면서 조금 힘들었던 점은, 학교에서 살다 보니까 규칙이란 것이 엄청 많잖아. 그런 규칙을 자라나는 사춘기 시기에 두어 번 어길 때 사실 학교에서는 자신이 한 일에 깔끔하게 책임지고 반성해라 하고 끝났는데 이 사실이 엄마랑 아빠한테 전해지면 학교에서 이미 책임을 진 일인데 한 번 더 혼나는 것 같아서 그때 좀 힘들었어. 물론 엄마, 아빠는 다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지만 말이야. 그런데 그런 말들도 듣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 2학년 필리핀 해외이동학습 갔을 때. 4개월 동안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사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그렇게 지겹던 잔소리도 듣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는 아마 내가 이렇게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진 못했을 거야. 별로 전화도 안 했으니깐.

나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스승과 좋은 벗을 많이 만나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교훈,
그리고 모범이 가장 훌륭한 교훈이었다. <발포아>

아무튼 엄마, 아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에 와서 소중한 경험들을 하고 가는 것 같아. 너무 고마워. 남은 3학년 한 학기 동안은 졸업 작품에 더 집중해서 정말로 엄마, 아빠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를 볼 수 있게 해줄게. 또 앞으로 산청 간디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때에도 우리 멀어지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딸 드림.





수업혁신 칼럼

수업이 아이에게 말을 걸다 하브루타

질문과 대화로 만나는 배움의 세계

글. 양경윤(안계초 수석교사, 하브루타 질문수업 저자)

“하브루타 수업이 뭐꼬? 할배수업?”

하브루타 수업을 했다고 하니 학부모님께서 할배수업이 뭐냐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하브루타 수업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뭔가 이질적이고 생소한 말로 들리시나요? 하브루타란 유대인의 교육방식으로 ‘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 즉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브루타’ 교육은 한동안 대한민국에 열풍처럼 불었던 자기주도학습처럼 지금 학교 교실현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교과교육만이 아니라 자녀교육부터 독서교육의 현장에 ‘하브루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하브루타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이 노벨상의 30%를 차지하고 하버드를 비롯하여 아이비리그 학생의 약 30%를 차지하는 공부법이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단순히 그들의 성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열풍을 불러온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브루타 교육의 기본은 ‘질문과 대화’입니다.

질문으로 뇌를 격동시키는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식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단순한 지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하나에 수많은 지식이 남겨져 올라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생각하는 힘은 더없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교육은 지식의 암기를 넘어서 생각하는 힘,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사색하는 힘이 너무도 중요해졌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는 것처럼 학교교실 현장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을 열고 배움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노력들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중에 하브루타, 질문수업은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학생들의 배움에 효율성, 효과성에 더하여 학생들의 행복한 즐거움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소통과 공감력을 올리는 인성교육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게 해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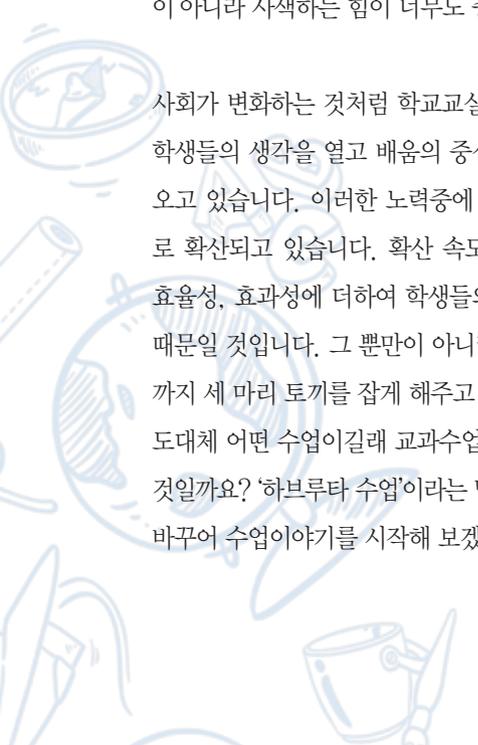
도대체 어떤 수업이길래 교과수업에서 인성수업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것일까요? ‘하브루타 수업’이라는 말을 ‘질문과 대화의 수업’으로 표현을 바꾸어 수업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브루타 수업’이 뭔가요?

‘친구, 짝, 파트너’를 뜻하는 히브리어인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 논쟁하고 질문하여 대안과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는 교육법을 말한다.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배출한 유대인의 교육법으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하브루타의 중심은 질문이다. 아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향상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훈련도 함께 하게 된다. 정답이 아닌 좋은 답을 구하기 위해 질문과 대답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법이다.



수업의 시작은 학생의 질문으로

수업시작은 교과서의 텍스트를 읽고 궁금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을 학생들 스스로 질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의 수준을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학생 자신의 궁금함을 질문으로 만들어 세상 밖으로 꺼내어 놓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만들으로써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꺼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왜?'라고 묻는 순간 궁금증이 일고,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학습 의욕이 생깁니다. 무작정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은 다시 학생들의 대화로

질문을 만들고 다시 학생들끼리 짝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덕수업의 주제가 '갈등'이라면 아이들이 각자 이와 관련된 질문을 만들고, 마주 앉은 친구와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짝을 바꾸어가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이어지면서 이야기는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갑니다.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갈등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교사는 학생들 대화 사이에 적재적소에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사고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작점은 학생들이 시작하지만, 학생들의 사고를 돕고 학습의 주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사는 끊임없이 핵심 질문과 이끄는 질문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하브루타 질문수업에서 교사는 질문의 실마리만 던질 뿐, 수업을 채워 가는 주체는 학생입니다.

기존과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간혹 하브루타 질문 수업의 효율성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과서 진도를 나가는 데 지장이 생기거나 학업성취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습은

분절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과 동기가 중요하기에, 교과서의 구성을 조금 변형하는 것일 뿐 전혀 동떨어진 방식이 아닙니다. 질문과 대화식 공부와 아이들의 사고 차원을 높이고 생각을 자라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학업성취도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대화로 인성이라는 토끼를 잡다.

또한 하브루타 수업은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품성은 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고와 태도, 행동 특성입니다. 즉, 생활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의 기본 역시 인성에 기초하고 있고, 인성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질문과 대화의 수업의 힘은 짝과의 대화를 통해 아이들은 지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들을 수용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소통하려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소통이 시작되면 공감이 이어지고, 존중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성교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교과수업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가르침 대신 소통을 채우고, 신뢰를 더하는 수업. 이것이 바로 질문과 대화로 이루어져 가는 하브루타 수업인 것입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질문으로 시작하는 대화를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딴 나라 교육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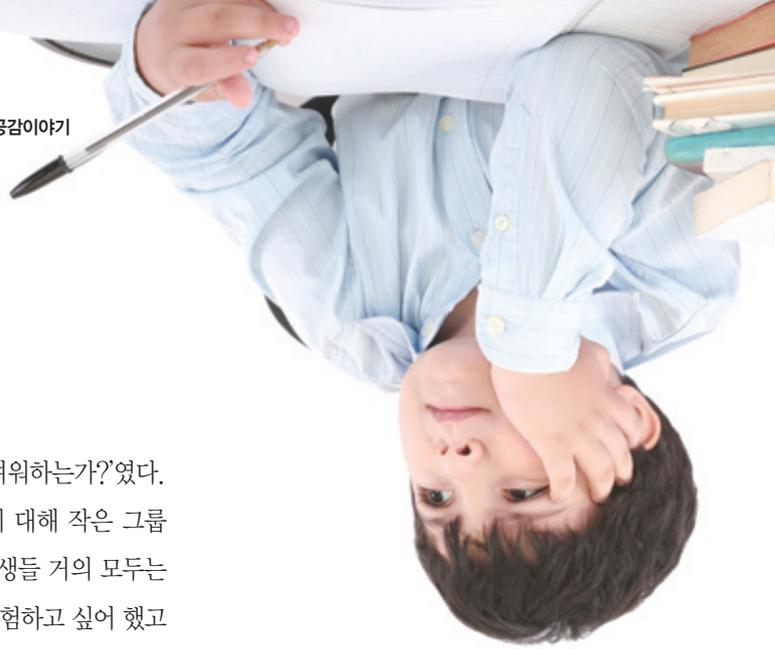
스웨덴 청소년들의 머릿속에는?

글. 황레나(레나의 실천적 부모교육 창안자)
번역 및 편집. 황선준(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

나는 지난해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오기 전 거의 20년 동안 스웨덴의 어느 중학교에서 전문상담사로 일했다. 전문상담사로 일하다 보면 사춘기 청소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글은 그런 대화를 바탕으로 스웨덴 중학교 남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동시에 한국에서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대화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이 나이의 사춘기 남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나는 전문상담사로서 내가 다니던 중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1학년 학생들과 언제나 그룹으로 대화하고 그 외 2, 3학년 학생들과는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대화했다. 한번은 2학년 남학생들 여남은 명이 한 그룹이 되어 나에게 대화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딱히 무슨 일이 있거나 주제가 있어 대화를 요청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이 기회에 이 나이의 사춘기 남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학생들에게 익명으로 각자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적어 내도록 했다. 거의 모든 학생은 하나같이 성(sex)과 여학생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고 적어 냈다. 다른 학생이 무엇을 적어 냈는지 모른 상태에서 내가 성과 여학생 그리고 관계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하니 모두 좋아서 환호성을 쳤다.



남학생들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1

남학생들에게 낸 그룹 대화의 첫째 주제는 ‘나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였다. 두려워하는 것 몇 개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것에 대해 작은 그룹(2~3명)으로 토론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토론하게 했다. 남학생들 거의 모두는 성경험을 해보지 않고 죽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했다. 모두가 성을 경험하고 싶어 했고 이들의 머리는 성과 여학생으로 꽉 차 있었다.

여학생들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2

둘째 주제는 ‘그럼 여학생들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는가?’였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게는 성이라든지 성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학생들은 남자와는 성욕이 다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몇몇 남학생들은 여학생도 남학생과 똑같이 성욕이 강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단지 나쁜 소문이 날까 봐 표현을 하지 않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조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남학생들은 대체로 여자친구가 있는 남학생들이었다. 즉 여자친구가 없는 남학생들은 남자와 여자의 성욕이 다르다는 편견이 있었고 남자는 여러 여자와 연애를 하는 게 자랑거리지만 여자가 그렇게 하면 조신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성과 관계라는 이번 대화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아니면 애초 자신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3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성과 관계라는 이번 대화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아니면 애초 자신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였다. 놀랍게도 한 남학생이 여자도 남자와 같은 성욕을 가지고 있고 여자도 남자와 같이 여러 남자를 만나도 나쁜 게 아니라는 걸 배웠다고 했다. 또 다른 남학생은 여자도 남자와 같이 성욕이 강하게 있다는 것을 존중해야겠다고 했다. 대부분 남학생은 이번 대화로 성, 성욕, 그리고 성을 즐기는 것에서 남녀 차이가 없다는 데 동의를 했고 애초 자신들의 생각과는 큰 관점의 변화를 겪었다고 했다.



나 자신도 이 대화를 통해 사춘기 청소년들에 대해 많이 배웠다. 이 시기는 성장이 왕성할 뿐만 아니라 성호르몬 분비도 가장 왕성한 시기로 청소년들의 머릿속에는 그야말로 성(sex)과 이성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다. 동시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는 시기라 이성에 대한 생각과 공부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지가 큰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아이는 이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거나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리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개방된 상태에서 이성과 교제하며 그로 인해 안정된 상태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나는 또 성이 개방된 스웨덴에서조차 많은 남자 중학생들이 여자의 성욕이 남자들과는 다르다는 편견이 있는 것에 놀랐다. 물론 남학생들이 이번 대화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성 문제를 사랑과 연계시키는 지혜를 보였지만, 나이 든 세대의 가부장적인 성 관념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닌가, 특히 이렇게 되는 데는 부모의 영향이 큰 게 아닌가 생각했다.

여기서 스웨덴이 성이 개방된 사회라는 의미가 성이 문란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성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 금기시돼 있지 않고 어디서나 쉽게 얘기할 수 있고 학교나 가정에서 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여성도 자신의 성욕에 관해 얘기하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어떤가? 성이 억압되어 있으면서 오히려 훨씬 더 성이 문란한 사회는 아닌가? 성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금기시함으로써 오히려 그로 인해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사회는 아닌가? 그래서 나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집에서 성에 대해 좀 더 열려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성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성과 사랑의 관계에 관해 얘기하며 이것이 일치할 때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포르노 등에서 볼 수 있는 성의 도구화와 여성비하에 대해 분명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가정에서 다음과 같이
자녀들과 성에 관해 얘기하고
고민해 보면 어떨까?**

- ❶ 어릴 때부터 육체, 감정, 남녀관계에 관해 얘기하자. 자녀가 10대가 되어 얘기할 거라며 기다리지 말자.
- ❷ 집안 분위기를 자녀가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열려 있는 분위기로 만들자.
- ❸ 엄마가 생리대를 살 때나 나이 많은 형제가 사랑에 빠질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연스럽게 성과 사랑에 관해 얘기하자.
- ❹ 실수할까 봐, 말을 잘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자. 자녀의 엉뚱한 질문이나 행동으로 인해 부모로서 난처할 때가 있지만 당황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자.
- ❺ 자녀가 자위하거나 포르노를 보거나 10대 자녀의 가방에서 콘돔이 나오는 것과 같은 상황에 대비해 이것이 괜찮은지 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 두자.
- ❻ 부모가 성과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직접 자녀들에게 보여주자. 예를 들어 가볍게 포옹한다든지, 키스한다든지, 손을 잡고 산책한다든지, 평소에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자.



우리 역사 속 교육 이야기

글. 박태성(두류문화연구원 연구위원)



교육(教育)을 한자로 풀면 老+子+女(支)=教(교)와 母+育=(毓;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어린 사람(子)이 나이 든 사람(老)을 받들도록 유도하고(支), 어미(母)가 아기(么)를 낳아 길러서 성장(育)시킨다(毓=毓)는 의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풀면 교육은 사람이 태어나서 생활을 하면서 성장하고 사회구성원들을 서로 존중하고 받들고 화합하며 살도록 가르친다는 의미가 된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교육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부모의 품에서, 밥상머리에서, 어른의 무릎에서, 밭이나 논에서 일하면서, 옛날이야기를 들으면서, 놀이를 하거나 물고기를 잡으면서... 어느 곳에서든 교육은 이루어졌다.

필자는 어렸을 때 마을에 큰일이 있어 집에 할아버지의 손님이 오시는 것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했고 한편으로는 반가워했었다. 두려운 이유는 손님이 오시면 반드시 가서 절을 올리고 할아버지 무릎 옆에 앉아 몇 가지 시험을 거쳐야 하였기 때문이다. “성(姓)이 무엇이나? 시조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나? 집안의 몇 대조 할아버지의 함자(銜字)를 아느냐? 그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나? 그 이외에도 중시조 할아버지, 파조 할아버지 등등 몇 가지 질문과 답을 다하고 나면 시험이 겨우 끝난다.



답이 명쾌하면 당연히 ‘그놈 참 누구 집 자손답다.’는 손님의 칭찬과 할아버지의 만족감에서 열리는 주머니에서 두둑한 보상이 꺼내어졌다. 또한, 큰 손님이 오시면 기르던 닭 한 마리는 저세상으로 간다. 닭을 잡는 기준도 다른 놈을 괴롭히거나 유독 별난 짓을 하는 놈으로 선정한다. 그 닭을 풍성하게 손님상에 올리고 나면 나머지 식구들이 먹을 것은 매우 적다. 그러면 손님이 상을 물릴 때까지 목을 빼고 기다린다. 손님도 그것을 알고 적당히 먹고 음식을 남겨서 물려주셨다. 이 일들은 반가운 기다림이다. 그 속에서 가문과 예절, 배려, 질서 등의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논밭에서 일하면서도 교육은 이루어진다. 보리를 심기 위해서 밭을 갈다가 동면하러 들어간 개구리가 뒤집혀 나와 추위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 그것을 보면 밭 한쪽의 양지바르고 흙이 부드러운 곳에 땅을 파고 물어준다. 배추밭에서 배추 애벌레가 배추를 갉아 먹으면 몇 마리를 모아두었다가 배추밭 끝에 두어 포기를 따로 둘러놓고 그곳에 풀어주고 다른 것은 못 건드리게 한다. 나중에 보면 배추흰나비가 예쁘기도 하다. 추수하고 난 뒤

보리를 심기 위한 갈이를 할 때 논 뒷고랑에서 미꾸라지가 나오면 주워 담지만, 어린놈은 따로 두었다가 돌아오는 길에 논 한쪽 둠벙(웅덩이)에 흘쩍 던지고 온다. 부모님께서 는 별말씀 없으셨고 왜 그러시는지 설명도 없지만 어린 아이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자연과 더불어 살며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인간이 어떠한 심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밖에서 놀다가 싸워서 상처가 나거나 맞고 돌아와 울면 할머니는 흠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묘한 냄새가 나는 치마폭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싸고 닦아주며 그래야 잘 된다고 위로해주신다. 또한, 남에게 맞을망정 때리지는 말라고 하신다. 맞은 놈은 발 뺀고 자고 때린 놈은 웅크리고 잔다는 말도 덧붙이신다. 폭력의 위험성과 양보와 배려 등을 배운다. 더 어릴 때 주로 안겨 놀던 대상이 어머니에게서 할머니에게로 이관되고 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더 주어진다. 어머니는 항상 바쁘고 어른을 먼저 챙기다 보니 먹는 것과 입는 것, 쉬는 것까지도 덜하고 모자란다. 그러나 할머니 곁에 있으면 모든 것이 조금 더 여유롭고 할머니의 혜택을 손자가 고스란히 누린다. 때로는 할머니의 사랑 때문에 할머니보다 오히려 더 누리기도 한다. 늦은 저녁 식구들이 하루 일을 마무리할 때 할머니와 손자는 이미 휴식을 취하며 감이나 무 등을 숟가락으로 긁어먹든지, 고구마나 감자, 밤 등을 삶거나 구워 먹으며 옛날이야기가 어린 상상력을 무한하게 키워간다. 육십쟁이 호랑이와 피 많은 토끼나 여우 이야기, 한을 품고 죽은 처녀 귀신이 한을 풀 이야기, 건넌마을의 효녀 효자 이야기, 어떤 바보 이야기, 반쪽이

처럼 불완전하게 태어났지만, 고난을 극복하고 예쁜 부잣집 딸과 혼인한 이야기, 은혜 깊은 동물 이야기, 동물 들끼리 나이나 힘을 자랑하는 이야기 등등 이야기보따리는 끝없이 풀어져 나온다. 삼강오륜과 삶의 지혜, 선과 악의 문제 등이 이미 그 이야기 속에서 실타래처럼 풀어져 나온다. 한여름 저녁이면 마을 느티나무 아래에 동네 아낙들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눈다. 할머니부터 아이 한둘 가진 젊은 새댁까지 그 구성은 다양하다.



몇 살배기 이상의 아이들은 하늘타리 박을 파서 등불을 만들어 들고 박쥐를 쫓기도 하고 개구리 낚시도 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재잘거리는 소리가 별이 뜨는 숫자만큼 시끄럽다. 더 어린아이는 아낙네들의 모임 속에 묻혀 있다. 낮에는 느끼지 못하는 아낙들의 내음이 아이를 안심시킨다. 아이는 졸리기도 하고 초롱거리기도 하면서 아낙들이 나누는 근처에 있는 마을들의 온갖 일들을 다 듣게 된다. 평소 착한 일을 하던 사람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사돈의 팔촌이라도 연결해서 그를 도우려고 한다. 그러나 평소 인색하고 폐악스러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 당연히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이 인과응보라고 하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준비를 하며 수의를 만들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물품을 정리하시면서도 죽어서 조상님에게 가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신 삶을 말씀드릴 준비를 하신다. 그러는 동안 손자들을 쓰다듬으며 자신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도 하고 이왕의 지난 일은 야단맞을 것을 각오하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아쉬



워하시는 것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예쁜 손주들을 더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신다. 인생을 한 줄로 정리하고 사랑을 물림하는 엄청난 교육이다.

대개의 부모는 집안 자녀들을 혼인시킬 때 그 집안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본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그 이유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차츰 그것이 바로 집안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것임을 차츰 알게 된 것이다. 그 아이를 보면 그 부모를 안다는 말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여실하게 깨닫는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부모가 아이를 잉태하였을 때부터 아이는 이미 교육을 받고 있다. 부모의 신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요인도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전통의학서인 『동의보감』, 『내훈(內訓)』 등에서는 임신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먹어야 할 음식, 금기해야 할 마음가짐과 올바른 마음가짐 등을 상세히 기록해 태아교육에 신경을 썼다. 또한, 우리 전통민속에서도 매우 까다로운 임신 금기가 있는데 대부분 처신의 문제, 음식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가령 '나쁜 마음을 먹고 분쟁에 관여치 마라. 그러면 아이 성격이 나빠진다' '자극적인 음식(술, 담배, 맵고 짠 것)을 먹지 마라. 그러면 아이가 피부가 상하고 성격이 날카로워진다.' 등등 모두 현대 의학에서 금하는 것들이다.

이처럼 교육은 태아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머니나 할머니의 품에서, 또한 놀이터나 일터에서, 밥상머리에서, 잠자리에서, 예를 차리는 손님맞이나 제사 등의 행사를 거치는 동안 항상 실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어디서든 내 아이가 나와 같이 생각하고 있으며 내가 보는 것을 같이 보고 있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닮으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며 부모는 아이의 거울인 것이다. 



“
아이
는
부
모
의
거
울
이
며
부
모
는
아
이
의
거
울
이
다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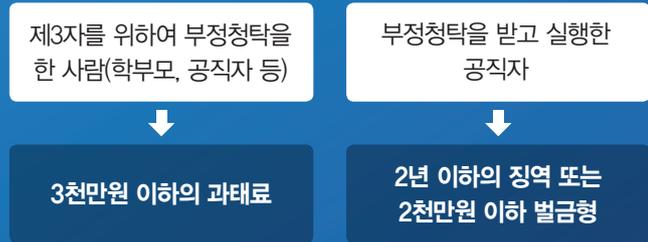
2016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둔 **청탁금지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최초 입안한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핵심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금품 등 수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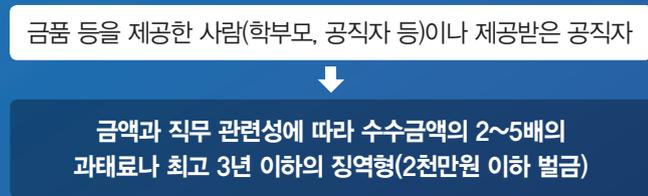
부정청탁에 관한 처벌



14가지 부정청탁행위 유형 중 학교와 직접 관련된 것

- ①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 ②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 ③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④ 공공기관 의사 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⑤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⑥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⑦ 특정한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⑧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⑨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⑩ **학교 입학 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⑪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⑬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 ⑭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금품수수에 관한 처벌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은 물론
학부모를 포함한
우리 모두 지켜야 할 법입니다.
”



※ 상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acrc) 참고

독서산책

사서가 / 권하는 / 책

어른을 위한 추천 도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윤용인 지음 | 알키 | 2016 | 248쪽

책 속 한 구절 ●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삶을 살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아버지도 그렇다. 다만 언제든 가족들이 가장을 필요로 하는 그때, 그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기 위해 체력과 애정을 비축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p.241-242)



세상을 품은 아이들 명성진 지음 | 스마트북스 | 2016 | 271쪽

책 속 한 구절 ● 아이들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제도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그 마음을 읽어 주고 공감해 주는 한 사람이, '시간의 마법'을 믿고 함께 견디며 기다려 주는 한 사람의 노력이 아이들을 바꾼다. (p.84)

고등학생 추천 도서



내 쪽으론 숨도 쉬지 않았다 장혜서 지음 | 한우리문학 | 2016 | 168쪽

책 속 한 구절 ● 왜 문을 두들기는 친구에게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알 것 같았다. 자신의 우울함이 전염되지 않도록 그녀는 자신을 격리하고 버티다가 마침내는 점화하고 태워버렸다. (p.176)



(지리쌤과 함께하는) 우리나라 도시 여행 전국지리교사모임 지음 | 폭스코너 | 2016 | 463쪽

책 속 한 구절 ●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공정여행입니다. 현지의 사람들과 관광객이 함께 즐거움과 의미를 공유하는 여행이지요. 여행은 공정한 일상으로, 윤리적인 일상으로, 삶과 생각이 전환된 일상으로 연결되어야 그 가치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p.6)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사서가 권하는 책



중학생 추천 도서



일단 알아봐 에런 벨릭 지음 | 내인생의책 | 2016 | 164쪽

책 속 한 구절 ●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 싶을 때, 세상이 끝날 듯이 느껴지겠죠. 하지만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깨닫기만 해도,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p.81)



엄마 없이 보낸 일 년 글·그림 다샤 톨스티코바 | 산하 | 2016 | 168쪽

책 속 한 구절 ●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와 만나서 너무 기뻐다. 엄마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엄마를 보니 한 해 동안 막혀 있던 숨통이 겨우 트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들도 있다. 이를테면 엄마가 분홍색 선물을 사 온 건 고맙지만, 지금은 좋아하는 색이 바뀌었다. (p.144-148)

초등학생 추천 도서



짜릿하고도 씩씩한 올림픽 이야기 글 김성호 | 그림 이영림 | 사계절 | 2015 | 132쪽

책 속 한 구절 ● 규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선수들과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감동하고 박수를 보내는 관중들 말이예요. 이 가치는 계산할 수도 없고 숫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p.121)



레오 나의 유명 친구 글 맥 바넷 | 그림 크리스티안 로빈슨 | 사계절 | 2016 | 52쪽

책 속 한 구절 ● “나, 너한테 거짓말했어. 난 유명이야. 네 상상 친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할 거야. 나는 네 진짜 친구야.”
“아! 그래? 그럼 더 좋지.” (p.48)

**통영고등학교 이해랑 학생과
충무중학교 이충수 주무관을 칭찬합니다.**

통영고등학교 2학년 이해랑 학생은 얼마 전, 늦은 시간까지 경시대회를 준비하다 밤 11시가 돼서야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미수동 방향으로 가던 이 학생은 충무대교를 지나던 무렵, 한 남자가 다리 난간을 넘어가려는 것을 보고, 급히 택시를 멈췄습니다. 앞뒤 사정은 알 수 없었지만, 이해랑 학생은 남자의 다리를 붙잡고 2, 3분을 버텼고, 그 사이 경찰이 도착해, 투신하려던 남자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용감하게 대처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이해랑 학생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7월 8일에는, 늦은 밤, 깜깜한 바다에서 정신을 잃고 떠내려가는 여성을 구해낸 시민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충무중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이충수 주무관으로, 이 주무관은 아내와 함께 산책길에 올랐다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소리에 지체 없이 물에 뛰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늦은 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도 거침없이 사람을 향해 뛰어든 이충수 주무관, 그의 살신성인 정신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 대방초등학교
학부모님을 칭찬합니다.**

저는 대방초등학교 교장 박성홍입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과 놀이터에 언젠가부터 여름이 되면 풀을 처리하는 데 매우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말을 지난 아침, 운동장을 돌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말 동안 뜻을 같이한 학부모님 몇 분이 아무도 모르게 학교에 와서 아이들의 놀이터에 있는 잡초를 말끔하게 뽑고, 모래밭에 이물질들도 깨끗이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술선해서 실천해 주신 임혜진 회장님, 정수정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학부모님께 우리 학교 전 교원들은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는 경남교육청 누리집

www.gne.go.kr ▶ 참여마당 ▶ 칭찬합시다 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은 의견을 모아
“아이좋아 경남교육” 매거진에 실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이들과 꽃을 사랑하시는
흥기평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31일 하동 악양초등학교에서 퇴임하신 흥기평 교장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아름다운 꽃을 보며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과꽃, 봉선화, 감국, 국화 등 다양한 꽃모종과 씨앗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일주일에 1~2번씩 꽃을 가꾸시고 계십니다. 아이들도 꽃으로 넘쳐나는 넓은 화단을 산책하는 것을 즐기며, 15종이 넘는 다양한 꽃을 보며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가까이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사천시 서포초등학교 손경모 교장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사천시 서포면에 위치한 전교생 70여명도 되지 않는 작은 시골 초등학교인 서포초등학교입니다. 공모 교장 선생님이로 발령받으셔서 행복학교를 너무나 훌륭히 운영해 주신 손경모 교장 선생님께 학부모로서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늘 현장에서 아이들과 학부모, 선생님들과 호흡하려 하셨던 그 열정 잊지 않겠습니다. 늘 소탈하시고 푸근하셨던 교장 선생님의 모습도 잊지 않겠습니다.

**생기있고 밝고 행복한 진해 장천의
5학년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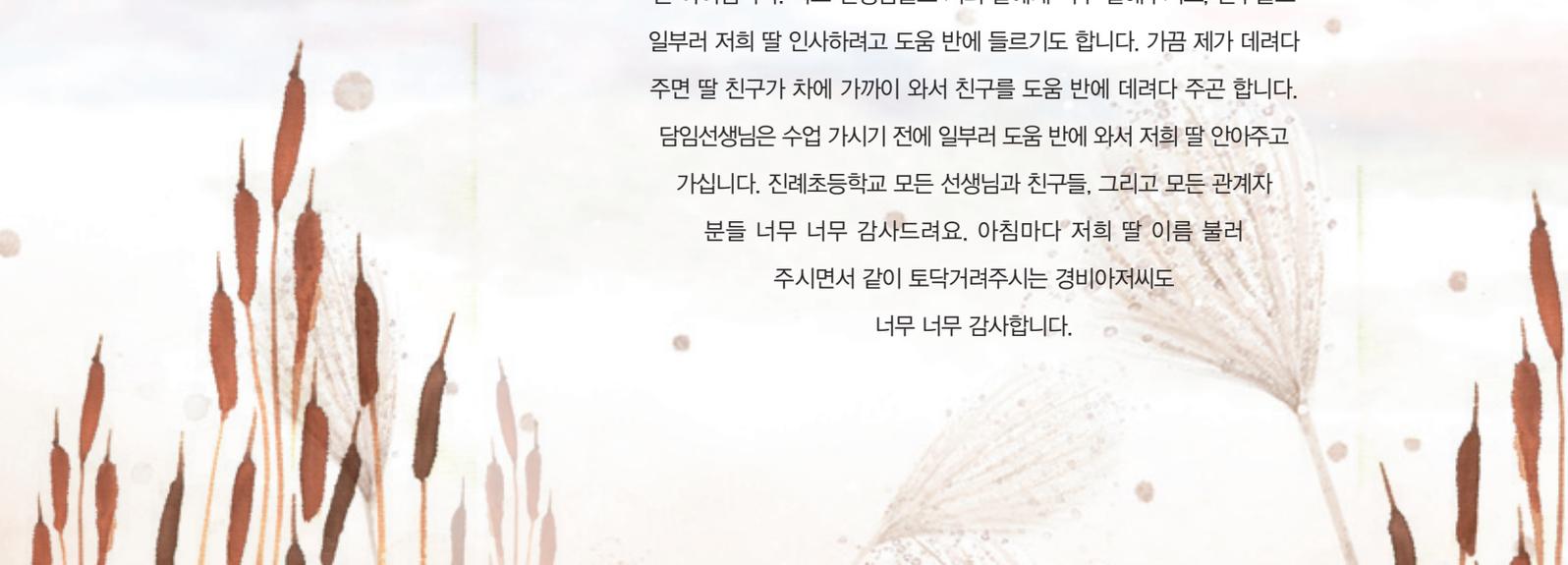
우리 장천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모두가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가끔은 우리를 위한 마음으로 나무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5학년 1반 은사님은 5학년 중에서도 가장 연륜이 있으신 분이요 그림이면 그림, 웃음이면 웃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신 분입니다. 2반 은사님은 조용하시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3반 은사님은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아주 크십니다. 5학년의 꽃! 지덕체를 모두 갖추신 우리 반 박주연 선생님은 넘치는 카리스마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천사 같은 말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십니다. 5반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을 자유롭게 하시며 행복하도록 하시는 좋은 선생님 이십니다. 이처럼 저는 자랑스러운 우리 장천의 No.5를 칭찬합니다.

Thanks for you



**평범한 아이로 학교생활 하게 해준
진례초등학교 선생님과 친구들 너무 감사해요.**

저희 딸은 지체 장애가 심하고, 언제 어떻게 발작으로 쓰러질지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저희 딸에게 너무 잘해주시고, 친구들도 일부러 저희 딸 인사하려고 도움 반에 들르기도 합니다. 가끔 제가 데려다 주면 딸 친구가 차에 가까이 와서 친구를 도움 반에 데려다 주곤 합니다. 담임선생님은 수업 가시기 전에 일부러 도움 반에 와서 저희 딸 안아주고 가십니다. 진례초등학교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모든 관계자 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아침마다 저희 딸 이름 불러 주시면서 같이 토닥겨주시는 경비아저씨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NEWS

교육 뉴스

EDUCATION

62만 경남도민의 염원을 모았습니다

01



도민 61만 8천명 급식법개정 청원 서명

경남학운위, 학부모 등 박종훈 교육감에게 급식청원 서명서 전달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경상남도협의회 등 학교급식법 청원 운동을 함께했던 도민들과 함께, 7월 5일 오후 2시 본청 현관에서 61만 8천명이 서명한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서 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 박덕만 경남학운위협의회장, 학부모 등 도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덕만 협의회장은 경과보고에서 “2015년 10월 26일 경남학운위협의회 임원들의 만장일치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청원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박종훈 교육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 정세균 국회의장 만나 학교급식법 개정 협조 요청

02

정세균 의장 “무상급식은 복지문제 아니라, 교육적 측면! 의장으로서 역할 다할 것” 경남학부모 국회정론회관 기자회견 “학교급식법 개정 여·야 동참 바라”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7월 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의장을 만나 「학교급식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급식은 교육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있는 투자”임을 강조하고,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지난해 경남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었던 혼란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은 이미 검증이 끝난 사항이라고 본다. 지금 다시 논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상급식은) 복지문제가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 논란의 해결을 위해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국회정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전액 부담, 국가 50%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협의 50% 부담」 등을 골자로 한 급식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안정적인 학교급식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청원한다. 여·야 국회의원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권 지킬 권리 보장돼야

03

경상남도교육청은 7월 5일 교육장, 직속기관장, 본청 과장급 이상 간부가 모인 교육정책 관리자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박종훈 교육감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과 교육적 활용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적 대응을 강조했다.

(초)미세먼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미세먼지 대책을 묻는 어느 학부모님의 질문에 밤잠을 설쳤다”면서, “월남전에 사용했던 고엽제나, DDT, 옥시, 우레탄 등도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건강을 해치는 물질로 밝혀졌고, 미세먼지 또한 WHO 지정 1군 발암물질이다.”라며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법령(대기환경보전법)과 매뉴얼(교육부)이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HO) 기준보다 2배 이상 느슨하다. 어른보다 더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도교육청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 우레탄트랙 개보수 사업 설명회

04

유해물질 검출 우레탄 트랙 전면 철거... 휴운동장으로 돌아간다

경상남도교육청은 7월 18일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2016년 우레탄트랙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개보수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교육부가 전국 학교 우레탄 운동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남에서는 우레탄트랙을 설치한 192개교 가운데 132개교에서 유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크롬이 검출된 바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최근 유해물질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을 걷어내고, 다시 최신 KS 우레탄 트랙을 해달라는 학교가 있다”고 전제한 뒤 “색을 내는 안료, 굳히는 경화제, 붙이는 접착제 모두 화학제품이며 착한 안료, 착한 접착제, 착한 경화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유해 중금속 검사는 납, 카드뮴, 6가 크롬, 수은 단 4가지만 검사하고 있으며 그 외 많은 검사는 하지도 않는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한 뒤 “1년에 새롭게 생성되는 화학물질이 2,000여 개이며 지금도 우리가 모를 뿐이지 5년, 10년 뒤에는 또 우레탄과 옥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NEWS

교육 뉴스

EDUCATION



교실 수업의 문을 열고, 수업을 말한다

05

경상남도교육청은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중·고등학교 38개교에서 '2016. 중등 수업나눔의 날'을 실시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중등 수업 나눔의 날 행사는 교사의 자발적인 수업공개와 수업담론을 통해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사 간의 진솔한 수업 대화로 교직사회의 동료성을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중등 수업 나눔의 날 행사에는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14개교 총 38개교 86명의 교사가 경남지역의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교실수업의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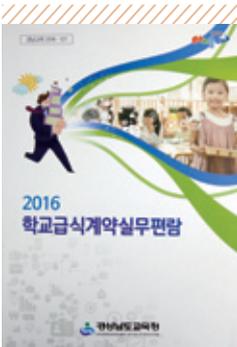
교실 수업나눔은 수업 성찰과 동료장학으로 선후배 및 동료교사 간의 상호 존중과 배움의 교단 문화를 조성하고, 수업 전문성 신장에 기여했다고 평가되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도서관에서 만나요!

06

경남교육청 소속 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24개 도서관 '별밤도서관' 운영... 오후 10시까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24개 전 공공도서관에서는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및 도민독서운동 확산을 위해 하반기부터 개관시간 연장사업 '별밤도서관'을 운영한다. 이번 '별밤도서관'은 주간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이나 직장인 등을 위해 경남도내 공공도서관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주 1회 이상 도서관 자료실을 야간 연장 운영하고 수요자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남 전 지역 공공도서관에 확대 운영되는 개관시간 연장사업 '별밤도서관'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수준 높은 독서문화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 최초 '학교급식계약 실무 편람' 출간

07

계약·식품위생법 등 급식관련 법 규정 포함 질 높은 경남형 학교급식 구축 밑거름 될 것으로 전망돼

경상남도교육청은 8월 3일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계약에 대한 전문서인 '학교급식계약실무편람'을 출간했다. 학교급식계약실무편람은 계약실무와 운영실무로 구성돼 있으며 계약실무편에서는 다양한 식자재 품목군별 계약방법에 대해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실례를 들어가며 기술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 계약실무편람'이 계약업무를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등 급식관련 법 규정에 대해 충분한 연구를 거쳐 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급식행정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새, 제비를 지켜주세요

n8

2016 제비생태탐구프로젝트 보고회 개최

60개교 · 450명 참여 · 제비등지 685개, 귀제비 51개 번식 등지 찾음

경상남도교육청은 2016 제비 생태 탐구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60개 제비 생태 탐구동아리 450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685개의 제비 번식 등지와 51개의 귀제비 번식 등지를 찾아냈다.

조사 결과는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네이처링> 스마트폰 앱에 등록했으며 현장 조사를 통해 창원이나 김해처럼 도심에도 여전히 소수이지만 제비가 관찰됐고, 제비동아리 조사 지역 내에서 제비가 관찰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제비 등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도심에도 우리가 몰랐지만 제비가 살고 있었으며 창원 시내 농산물 공판장에서 제법 많은 숫자의 제비가 발견됐다.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제비생태탐구프로젝트 사업은 우리 가까이에서 살아 있는 제비를 조사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느끼는 살아있는 생태환경 교육이다”면서 “앞으로 넥센과 함께 공익캠페인과 제비 등지 받침 사업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제비 보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폐교 재산 활용 · 관사 운영 관계자 회의

n9

경상남도교육청은 7월 14일 오전 10시 30분 2층 대강당에서 도내 교육지원청 재산관련 담당 과장, 팀장, 업무 담당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폐교 재산 활용 및 관사 운영 관련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폐교에 대한 의회 및 주민들의 관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며 아울러 최근 발생한 도서·벽지 지역 사건을 계기로 관사에 대한 안전 대책과 환경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미활용 폐교의 적극적 활용 및 처리 방안, 관사 운영 및 활용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했다.

미활용 폐교에 대한 주요 추진 방안으로는 ▲대부 또는 보존 관리 중인 폐교의 적극적인 조치 추진 ▲폐교 부지를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 농어촌 관광 거점으로 활용 ▲통폐합 결정 및 예정 학교에 대한 선제적 대응 ▲관계 지자체와 연계협력 강화 ▲폐교 활용 홍보 ▲폐교 임대료 징수 문제 등이다.

관사 운영 및 활용 방안의 주요 내용은 ▲관사 안전 강화 및 거주 환경 개선 ▲관사 활용 및 처리 방안 판단 ▲관사 사용료 부과 등 관사 관리 및 운영 ▲공동 및 통합관사 확충 등이다.

NEWS

교육 뉴스

EDUCATION



‘경상남도교육청, 수학문화관으로 날개를 달다’

10

교육부 수학문화관 조성 지원 사업단 선정 박종훈 교육감 “행복한 수학교육의 출발점 되길”

경상남도교육청은 8월 3일 교육부가 시행하고 한국창의재단이 주관한 공모 사업에서 수학문화관 조성사업단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2곳을 선정하는 ‘2016년도 수학문화관 조성 지원 사업’에 응모해 시·도교육청에서는 경남교육청이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의 노원구청이 각각 선정됐다.

수학문화관 조성 지원 사업은 2016년 교육부에서 2억 5,00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2018년까지 지원되며 대한민국 최초의 수학문화관 건립을 위한 기초사업의 일환이다.

수학문화관은 누구나 언제든지 ‘수학문화’ 관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교육 차원의 무료 수학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 공간 및 연구기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남형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조달 시범사업 설명회

11

납품업체 관계자 대상... 8월 8일 창원문성대 추진 배경·구매 품목·평가기준 등 안내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형 학교급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재료 공동조달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8월 8일 창원문성대학교에서 납품업체 관계자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조달 시범사업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따라 공공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동구매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평소 사용량이 많고, 음식의 맛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가격부담으로 원재료와 부재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들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식재료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원재료·부재료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우선 사용 ▲식품첨가물 사용금지 ▲NON-GMO(유전자재조합 농산물 및 식품 사용금지) 등의 품질 기준을 마련했다.



고교 냉방비 8억원 긴급 지원

12

15학급 미만 300만원 · 15학급 이상 500만원

경상남도교육청은 대입 준비를 위해 조기 개학해 폭염 속에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냉방비 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도내 대부분 고등학교는 방학 중 보충수업과 개학 이후 대입 수시전형 준비 등으로 한창 분주한 시기이고 특성화고등학교도 각종 자격증 취득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 속에서도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기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냉방 전기요금 8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한 전기요금은 학급수 15학급 미만은 300만원, 15학급 이상은 500만원을 지원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단위학교에서 느낄 냉방비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대입준비에 냉방 여건이 공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상남도교육청, 전국 발명대회 최고상 휩쓸어

13

**제28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국무총리상... 경남과학고 강미승
제38회 전국학생발명품경진대회 최우수상 고성초 여동엽 학생
전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대상 진주 선학초등학교 등 수상**

경상남도교육청이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최고상인 국무총리상, 전국학생 발명품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경남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전국대회에서 최고상을 휩쓸었다.

경남과학고등학교 강미승 학생이 대회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금상 3팀, 은상 8팀, 동상 20팀 수상했으며, 거창 고제초등학교와 창원과학고등학교에서는 단체상을 수상하는 등의 쾌거를 거뒀다.

또, 지난 7월 11~12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된 제38회 전국학생발명품 경진대회에서도 분야별로 골고루 톱독 튀는 아이디어 작품을 출품해 고성초등학교 여동엽, 창원과학고등학교 이서현 학생팀 최우수상 2팀 수상을 비롯해 특상 6팀, 우수상 7팀, 장려상에 5팀이 수상하는 등 역대 최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아이좋아 경남교육 매거진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창원시 6선거구 출신 한영애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맡은 임기 동안 의회와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남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도록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마음까지
풍요로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제10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 영 애**

NEWS

교육위원회
의 정 뉴스

EDUCATION

상임위원회 활동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최

교육위원회(위원장 한영애)는 7월 13일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남도 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서종길 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옥영문 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옥영문 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한영애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4건의 의안발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이어, 2016년도 경상남도 교육청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경상남도의회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 설립 예정부지 등 현장방문

교육위원회(위원장 한영애)는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 설립 예정부지의 타당성 검토 및 참고자료 수집 등을 위해서 2016년 7월 18일 경상남도소방본부 예정부지 및 경상남도교육청 예정부지를 각각 방문하였다. 집행부로부터의 업무보고를 받고,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의 접근성 및 설립 장소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다.

제10대 경상남도의회 하반기 교육위원회원 구성 현황



위원장

한영애
창원6, 새누리당



부위원장

옥영문
거제1, 새누리당



김지수
비례, 더불어민주당



서종길
김해6, 새누리당



심정태
창원13, 새누리당



이병희
밀양, 무소속



이상철
비례, 새누리당



하선영
김해5, 새누리당



대입 모집 정원의 70% 선발! 대입 수시모집 유의사항 및 대비법



❶ 2017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변경된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수능과 관련해서 한국사를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대학에 따라서 등급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기도 하고, 응시 자체를 기본 자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절대 평가 9등급으로 평가를 하는데, 등급 분할 원점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A형과 B형으로 나누어 치르던 국어는 공통 문항으로 출제됩니다. 수학도 A/B형으로 수준별로 출제되던 형식에서 계열별(자연계열 가형, 인문계열 나형)로 변경됩니다.

한국사 영역 등급 분할 원점수

등급	1	2	3	4	5	6	7	8	9
분할점수 (원점수)	50점 ~ 40점 이상	40점 미만 ~ 35점 이상	35점 미만 ~ 30점 이상	30점 미만 ~ 25점 이상	25점 미만 ~ 20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이상	10점 미만 ~ 5점 이상	5점 미만 ~ 0점

❷ 수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수시접수
9. 12.(월) ~ 9. 21.(수) 중 대학별 3일 이상

❸ 수시모집 6회 제한과 관계없는 대학 및 전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일반 4년제 대학 수시 전형은 모두 6회 지원 제한을 받습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도 6회에 포함됩니다. 단, 산업대학·특수목적대학·각종학교는 제외됩니다.(아래표 참조) 이 밖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및 전문대학고는 수시 6회 제한과 관련 없습니다. 횡수에 관계없이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 6회 미포함 산업대학·특수목적대학·각종학교

구분	수시 6회 미포함 대학
산업대학	청운대학교, 호원대학교
특수목적대학	경찰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각종학교	(대학과정) 순복음총화신학교, (전문대학과정) 구세군사관학교 등

❹ 수시모집에 합격했다라도 등록을 안 하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수시모집 최초합격 및 총원합격자(전문대학교나 산업대학 포함)는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중등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대학에 합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 곳에는 최종 등록하여야 합니다.

❺ 수시모집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기소개서, 추천서 '0점' 처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학생부 전형에서는 제출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 각각에 배점을 부여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서류평가에서 '0점' 처리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합격 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공통양식에서 제시된 작성 금지 항목을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에 작성했을 경우 해당 학생은 실질적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쓰는 모든 전형에서 '0점' 처리가 되나요?

Ⓐ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해당됩니다. 즉, 대학이 모집요강 등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표시된 전형에만 적용됩니다. 특기자전형과 재외국민·외국인특별전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반드시 지원하는 대학의 모집요강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인어학성적 및 수학·과학·영어 관련 외부 수상실적을 작성하면 '0점'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해도 마찬가지인가요?

Ⓐ 공인어학성적 및 수학·과학·외국어 교과명이 명시된 외부 수상실적은 학교장 허락 여부에 관계없이 '0점' 처리되며,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록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주최한 대회실적도 교외 수상실적이므로 '0점' 처리됩니다.

㉢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과정과 다르게 대학에 지원할 수 있나요?

Ⓐ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인문과정(문과), 자연과정(이과) 등으로 나누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방법일 뿐 교육과정상으로 구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별고사가 있는 경우에는 계열을 바꾸어 지원하게 되면 불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최저학력기준이 무엇인가요?

Ⓐ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저의 성적을 말합니다.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최종합격 기준에 미달하여 불합격하게 됩니다. 최저학력기준으로는 수능성적이나 학생부 교과성적이 사용되는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수능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학 내에서도 계열별, 학과별로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시모집에서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수시모집의 전형유형은 크게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특기자전형, 적성시험전형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전형별로 중요한 전형요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전형요소		학생부		서류 (자기소개서/ 추천서)	수능	대학별고사		
	교과	비교과	교과	비교과			논술	면접	실기
수시	학생부	교과	★★★★			★		★★	
		종합	★★★★	★★	★	★		★★	
	논술		★★			★★	★★★★		
	실기(특기자)		★	★★★★		★		★★★★	
정시	수능		★			★★★★			
	실기(예체능)		★			★			★★★★

ㄹ 위의 표에서 각각의 전형요소를 자신과 비교하여 강점이 많은 전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각각의 요소에 대한 분석은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기타 유의 사항이 있다면?

Ⓐ 전년도 원서 접수기간에 비해 올해 접수기간이 이틀이 늘어났는데, 접수기간이 늘어났다는 점은 대학별 마감일이 다양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지원 희망 대학의 접수 일자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또한 수능 9월 모의평가 성적을 맹신해서는 곤란합니다. 수시 지원을 할 때 수능에서 9월 모의평가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정시 대비 궁금한 정보와 상담은 어디서 가능하나요?

Ⓐ 올 해 3월 경상남도교육청 1층에 개소한 경남대입정보센터에서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 대한 정보와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전화상담, 방문상담 등 많은 이용 바랍니다.



경남대입정보센터
상담 예약 및 전화상담 방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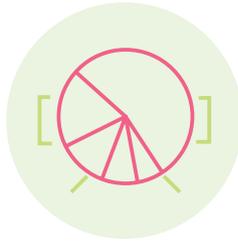
대표 상담 전화
055-278-1663

각종 안내 및 문의
055-278-1658~1663

홈페이지 안내
<http://jinhak.gn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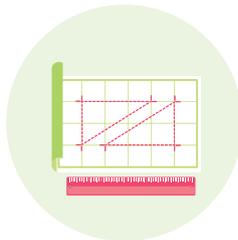


2017학년도 후기 평준화 지역 일반고(자공고 포함)전형



2017학년도 후기 평준화 지역 고입전형 일정은?

경남의 평준화 지역(4개 권역) → 제1학군 창원 제2학군 마산
제3학군 진주 제4학군 김해
원서작성 및 접수기간 → 2016. 12. 12.(월) ~ 12. 15.(목)
합격자 및 배정 발표(예정) → 2017. 1. 20.(금)



2017학년도 고등학교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은 언제까지입니까?

내신성적산출 기준일은 교과는 3학년 2학기 2차 고사까지 반영하여 2016. 11. 17.(목)까지 산출하고, 비교과는 2016. 11. 14.(월)까지의 사항을 반영합니다. 교과영역(160점), 비교과영역 합계(40점) 만점으로 산출합니다. 교과영역은 1학년 1학기 성적부터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 중에서 성적이 존재하지 않는 학기는 제외하고, 성적이 존재하는 학기에 한해 동일 비율로 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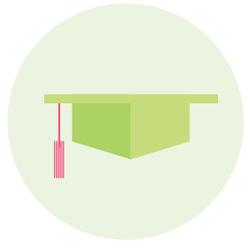
2017학년도 후기 평준화 지역 고입전형에서 학교추첨 배정방법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학교 배정은 평준화 지역 학군별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 배정 희망에 의거 선지원, 후추첨 방식입니다. 합격자를 남·여별로 전형 성적(출신 중학교 내신석차백분율)의 석차 순에 따라 석차 백분율을 소수 둘째 자리(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구한 후 9개 석차등급으로 컴퓨터 무작위 등급별 추첨배정 방식입니다. 다만, 올해는 평준화 지역의 체육특기자를 희망학교에 우선 배정하되, 체육특기자 수를 학교배정 정원에 포함하여 등급별로 배정 인원을 산출하여 일반학생을 배정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중3 학생의 경우, 당해 평준화 지역의 고교 진학을 위한 전·입학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고입전형 일정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10. 31.까지 전·입학이 가능합니다. 각 평준화 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는 타 학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학교 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포함)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타 학군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군에 지원하여야 합니다.



고입전형에서 선배정, 재배정 제도는?

우선 선배정제도는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출신 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해당 지역 고입전형에 응시하여 입학이 예정된 자(합격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전·입학 제한일(2016. 11. 1.)부터 신청서 접수일까지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의 평준화 지역으로 이전된 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재배정제도는 타 학군 거주이전(예정)자가 입학 전에 배정을 하는 제도로, 2017학년도 경남 평준화 지역 학군 내 일반고(자공고)에 배정된 자 중, 전·입학 제한일(2016. 11. 1.)부터 학교배정 발표 전일(2017. 1. 19.)까지 도내 평준화 지역 타 학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 중 재배정 희망자에 한합니다.



2016학년도 후기 평준화 지역 1지망 학교 배정비율은?

2016학년도부터 처음 실행한 등급별 추천배정의 결과 1지망 배정 비율이 약 77~80% 내외가 됩니다. 이는 동일 배정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와 전남의 경우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평준화 지역 고입전형에서 등급별 추천 배정방법 변경 이후 크게 달라진 점은?

공·사립 간 교육격차 해소와 모든 학교가 교육력 제고를 위해 협업하고 경쟁을 통해 학생의 맞춤형 진로진학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해졌고 함께 더불어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입시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통해 일반고 교육역량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대표전화 055)268-1100 / 교육민원 055)268-1004 www.gne.go.kr